登錄라－2448號
1988. 11. 9 第 3 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1년 1월 1일 제154호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崔 瑞 泳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羊과 같이 뭉치는 한해를…

올해는 辛未年. 羊의해. 羊과 같이 뭉치고 團結해서 동문 모두에게 榮光된 한해가 되길…(사진은 지리산 운봉목장의 해돋는 모습)

冠岳春秋

「좋은 세상의 元年」되길

넓은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緬羊, 예쁜 뿔을 까닥이며 목동의 뜻을 따르는 山羊, 모두가 詩的 감흥이 절로 솟구치게 하는 牧歌的인 모습들이다. 온순하고 포근하고 평화롭고 순진무구하고—. 살펴보면 바람에 얼굴이 쓰린 것도 같고, 길쭉한 속눈썹이 따가울듯도 한데, 찌푸림 하나 없이 千年忍苦,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순종하는 천성은 과시 「속죄양」다운 내력이며 體統이라고나 할까.

그렇다고 羊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사람처럼 얼굴모양으로 다른 양들을 구별할줄 안다. 친숙한 同族에게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뿔을 갖고 자신들의 血統을 구분한다. 뿔의 크기로써 서로의 힘과 性을 상징하기도 하고 항상 그들을 몰아치는 사람과 개를 가장 두려워 하기도 한다. 양들의 이런 知能지수·정교한 美的판단은 3년전 英國 케임브리지 地方의 한 식량농업연구협회서 실시한 양의 「腦세포조직」검사로 드러난 결과이다 (당시 과학전문지 「디스커버」보도).

1991년의 새해 새아침—

올해는 바로 그런 「羊의 해」이다. 그래서인지 東녘의 햇살과 南門의 봄기운이 유달리 보드럽고 훈훈해지는 年頭序感이 우선 앞선다. 사실 근래 한 두 해 동안 우리는 안팎으로 너무나 심한 變革과 激動을 겪으며 살아왔다. 하고한 날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근심하고 조심해야 했었다. 목청 큰 사람들의 不協和音, 큼직 큼직한 돌발사고, 거리와 골목이 무서워지는 생활환경, 불안해지는 物價나 料金, 자고 나면 엄청나게 달라지는 바깥세상, 모두가 눈앞이 팽팽 돌 지경이었다.

羊띠 새해는 그런 시름들을 청산해 주리라는데서 祝禱의 기쁨을 더욱 부풀게 한다. 反射的인 친근감과 희망의 무지개를 보다 아름답게 물들여 준다. 좀 더 「좋은 世上의 元年」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서 德談어린 交拜人事부터 해 두고 싶다. 부디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소원 성취하시고」「平和와 幸福과 사랑과 건강이 그득하신 한해가 되시옵소서」…。

善德의 씨앗이나 뿌리를 굳이 멀고 어려운데서 찾아 심으려 할 필요는 없다. 서로를 축복해주는 조그마한 이 마음에서 사람들은 착해지고 어질어진다. 고운 말, 아름다운 말, 겸손한 말을 주고 받는 인사로써 사랑과 情을 꽃피울 수 있다.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즐겁고 깨끗해짐에 따라 인자한 그의 심성과 고상한 인품이 빛을 發하게도 된다. 눈동자에 精氣가 서리고 행동하는데 新鮮感이 솟구치기 마련이다.

新正은 이런 人生예술의 새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서 언제나 값진 의미와 가치를 새길 수 있다.

원래 사람의 본 마음이란 모두가 깨끗하게 태어난다. 하늘 보다도 밝고 넓은 빛을 갖고있어 千秋萬古에 변함없는 영광성을 지닌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설사 한 때 그빛에 때가 낀다 하더라도 지우면 여전히 맑아질 수 있는게 사람들 本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哲人들은 그 깨끗한 본심 즉 淸淨心을 가리켜 인간정신의 근본이며 人生의 뿌리라고 정의한다. 사회에선 正義와 良心의 샘터로, 道德의 등뼈로, 통념화하였고 宗敎에선 信仰의 원리와 핵심으로 이를 필수불가결시 한다. 그 곧고 깨끗한 본심이 實行으로 활짝 피어난 사회, 그 본심이 온갖 국사와 세사운용의 主眼點으로 작용하는 세태가 곧 公明하고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을 앞당겨 유도하게 된다.

부질없는 貪慾은 그 앞에 무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權力의 부패, 金力의 병폐 역시 手術을 면치 못하게 된다. 不義는 기필코 屈하게 되며 그 어떠한 橫暴나 오만, 억지와 混濁도 통할 理는 만무해진다. 이처럼 청명해야 할 꿈속의 우리 둘레·우리 大地에 羊떼들이 무리지어 노니는 이 새해 새봄에 실려, 따사로운 春光은 머지않아 환하게 번져올 것 같다. 生의 順理를 타이르는 自然의 섭리와 함께, 깨끗하고 화애로운 새 세상을 바라는 좋은 사람들의 求心과 함께…。

(新年頌詩)

해와 더불어 더욱 더 빛나리라

—— 鄭 漢 模 〈55년 文理大卒·詩人〉

北에 北漢山
南으로 冠岳의 외뿌리
그 사이 가로 질러 흐르는
漢江의 큰 물줄기
漢陽 서울의 擇地는 炯眼이었다

여기에 자리 잡은 서울大學校
나라의 높은 봉우리
겨레의 밝은 燈불 서울大學校
줄줄이 代를 이어 배출되는 위대한 家族
一世代의 兄弟姉妹

二世代 三世代의 兄弟姉妹들
나라의 기둥되고 대들보 되고
모든 분야 여기 저기 中心 이루어
世界로 도약하는 우리 家族들
해가 뜬다
새해가 밝아온다
하늘에 솟는 봉황의 머리벼슬
높은 봉우리
하늘을 주름잡은 大鵬의 날개
아침 해에 물든다
줄기줄기 뻗어가는 큰 산줄기
나라의 구석구석 밝히는 燈불
해와 더불어 더욱 더 빛나리라
나라와 겨레 더불어 뻗어가리라。

母校支援 강화·「자랑스런 서울大人」賞 제정, 시상

新年辭

회장 崔主鎬

多事多難했던 1990년을 보내고 희망차게 밝아오는 辛未年을 맞이하여 동문여러분께 삼가 새해 人事를 드립니다.

이 나라 최고의 知性인 우리 동문들은 國內外를 막론하고 각계 각 분야에서 中樞로 활약하고 있는바, 본인은 이점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전 盧在鳳동문께서 國務總理에 임명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동문이 立法·司法·行政의 首長을 맡게 된 것은 서울大人으로서 무한한 自負와 矜持를 느끼게 해줍니다.

本會는 지난 한해 괄목할만한 發展을 이룩했습니다. 새 會員名簿의 발간, 10억獎學基金조성, 18만 동문의 電算化 완료, 그리고 동창회 創立이래 처음으로 우리 會長團이 美國의 각 支部를 순방해서 海外 동문들의 결속에 活力을 불어넣어 「在美 서울大學校總동창회」를 결성하게된 것은 同窓會史에 큰 자취로 남을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창회는 이제 단순히 동문상호간의 親睦을 도모하고 母校의 발전을 支援하는 차원을 넘어서 國家의 장래를 염려하고 책임져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해에는 國家와 民族에 크게 기여한 동문에게 「자랑스런 서울大人」賞 시상제도를 마련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0억 獎學基金이 달성된 만큼 後輩 在學生에 대한 獎學金과 교수硏究費를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아울러 國內外 支部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本-支部간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창회 總會때 각 支部長의 초청을 정례화하고 5~6월쯤엔 지부장 會合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서울大人」이라는 共同體의식고취를 위해 校歌와 同窓會歌를 수록한 카세트테이프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며, 동창회의 모든 행사때는 가능한 한 이를 齊唱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國內外적으로 激變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동문들이 굳게 團結하고 뛰어난 力量을 발휘해서 同窓會와 母校 그리고 國家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기여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崔 회장

校歌 同窓會歌보급 共同體의식 고취

—同窓會·冠岳會 새해 事業계획

지난 90년도는 우리 同窓會의 일대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었다. 78년도 이후 12년만에 간행된 會員名簿를 비롯하여 10億 獎學基金조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동창회 역사상 초유의 美洲支部 순방으로 해외동문들의 결속을 다진해였다. 이밖에도 갖가지 획기적인 활동으로 명실상부 으뜸가는 동창회로서의 면모를 확고하게 구축한 元年이었다.

올해도 동창회는 이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母校지원 확충」「동창회의 內實化」라는 양대명제를 기치로 명실공히 18만同門을 대표하는 동창회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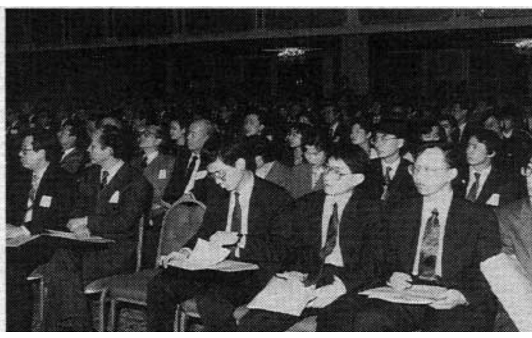
1、10億기금조성과 會員名簿발간

동창회는 그간의 숙원사업이었던 회원명부 발간과 10억기금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근간으로 새해에는 飛翔의 나래를 활짝 펼 계획이다.

특히 회원명부는 지난해 연말로 초판 1만부가 매진, 1월중으로 재판 5천부를 찍어내 동창회 基金에 소중한 일조를 하게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18만 동문의 헌신적인 협조와 우정어린 관심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사실 외에도 회장단의 뼈를 깎는 희생이 곁들여진 쾌거라는 점에서 국내 他大學 동창회의 귀감이 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동창회의 內實化

동창회는 그동안 꾸준한 조직강화및 확대에 힘쓴 결과 현재 1백20여개의 직장支部를 비롯해 40여개의 地方·海外지부가 결성돼 있다. 이러한 지부들은 출신 單科大學(院)이나 각 期를 초월해 「서울大人」으로서의 일체감속에 운영되고 있다.



◇우리 동창회는 이제 단순히 동문 상호간의 親睦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國家의 장래를 염려하고 책임져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사진은 지난해 총회 광경.

國內外지부 活性化 독려

동창회의 내실화는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려니와, 母校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명제이다. 동창회는 지난해 해외지부 巡訪을 통한 해외동문들의 결속 강화, 지방支部행사의 지원 등을 통한 유대강화에 힘을 쏟았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세부계획하에 「참여 협력 영광」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모든 동창회 행사에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친목사업을 단순히 만나서 즐기는 차원에서, 발전을 논하며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동문들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모든 동창회행사에서 校歌와 同窓會歌를 제창하는 풍토를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가및 동창회가 수록된 카세트테이프를 제작, 보급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민족에크게 공헌한 동문을 선정, 「자랑스런 서울大人賞」을 시상하는것도 연구·검토하고 있다. 금년에 있을 전체모임으로는 우선 3월에 있을 定期總會에서 10億 장학기금 조성의 완료를 선포하면서 동문전체가 모교의 발전에기여하는 붐을 조성할것이며 국내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同窓會報의 지면쇄신을 단행, 동문들의 결속을다지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會員名簿 5천부 再版

각종 行事에 솔선參與 유도

한편 기존에 시행하던 가을登山大會뿐아니라 45주년을 맞는 모교 개교기념행사에서도 동문들의 位相을 가일층 제고시키게끔 노력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18만 동문 각자의 헌신과 애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母校지원 强化

동창회는 10億장학기금의 조성이 완료되는것을 시작으로 그간「의욕은 충만했으나 여건이 따르지 않아」 미미한실정이었던 모교지원도 적극화할 계획이다.

동창회는 이를 위해 재단법인 冠岳會로 하여금 1억원 이상을 모교지원 사업비로 쓰도록 이미 올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總會에서 동창회 회장단이 공약한 사항이었던바, 차질없이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모교 최대의 현안인 「세계의 大學」으로 웅비하기 위한 發展基金조성에도 동창회는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몇해전부터 각계의 동문들은 적지않은 규모의 지원을 모교에 해왔다. 그러나 모교의 발전이 몇몇 동문들만의 관심과 기여로써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닐진대 18만동문 전체가 十匙一飯의 협조정신을 발휘할때 비로소 동창회가 존립하는 목적이 구현될 것이다.

4、2千年代를 지향하는 同窓會

이제 세계의 대학으로 진입하는 모교의 位相에 걸맞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 한해가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동창회로서는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이다.

재삼 당부하는 것은 모쪼록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써만이 다가오는 2천년대에 서울大人의 위상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동창회를 중심으로 굳게 결속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單科大學(院) 동창회장 新年포부

우리 同窓會가 해가 갈수록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單科大學(院) 동창회도 지난해엔 크게 활성화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친목사업을 비롯하여 母校 지원과 奬學金의 지급액수도 점점 늘려 가면서 알찬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單大 동창회장의 새해 포부를 통해 각 동창회의 靑寫眞을 살펴본다. 〈접수분〉

郡단위까지 組織 확대

農大회장 **沈鍾燮**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여러분의 건강과 새로 계획하시는 일들이 如意 成就되시기를 祝願합니다.

우리 同窓會는 금년에 더욱 많은 동문들을 찾아 동문간의 友誼를 돈독히 함은 물론 각 분야에서 相扶相助하는 農大의 전통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가능한한 郡單位까지 동창회支會를 설정하

◇沈鍾燮회장

여 그동안 疎遠하였던 동창간에 더욱 긴밀한 연락과 활동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同窓會날을 정하여 그날에는 모든 동창이 한자리에 참석(부인과 아이들도 같이)하여 노래자랑, 운동회, 장기자랑등 많은 행사를 통하여 학창時節을 회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볼까합니다. 물론 母校發展에도 적극 협력하려 합니다.

奬學基金 조성에 總力

法大회장 **金性洙**

法大同窓會가 91년도에 동문들의 衆智를 모아 중점적으로 펴나가고자 하는 사업은 첫째 동문상호간의 돈독한 유대결속을 통하여 동창회와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둘째로 職場 및 市·道支部와 回期別同窓會의 조직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全法大人의 동창회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동창회가 모교후진을 위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駱山奬學會의 奬學基金造成에

◇金性洙회장

더욱 힘써 全法大人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상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일입니다.

끝으로 모교지원사업으로 매년 동창회가 예산을 책정 지원해온 法大행사 및 학생활동 보조는 물론이고 지난해 4월 기공식을 갖고 92년 하순경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인 「法學硏究棟」의 공기내 완공을 위한 全법대인의 깊은 관심과 협조입니다.

이외에도 駱山會報·會員名簿등 간행물사업 등이 있으나 91년도에는 우선 이상 네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하오니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先後輩간 친목 단결을

師大회장 **權相澈**

서울大學校 總同窓會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호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權相澈회장

드립니다.

90년도 저희 師大同窓會는 어느해보다도 많은 同門들의 참여로 활성화된 同窓會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91년 새해에도 저희들은 지난해의 동창선후배간의 결속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親和團結을 더욱 다져서 동창후배들이 교육현장에서 원만한 教育者像을 심을 수 있는 정신을 드높이는데 힘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師大同窓會가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보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惠澤의 폭을 더 넓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同門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젊고 活氣찬 同窓會로

商大회장 **張禮準**

1991年에는 商科大學 同窓會員이 1만3천5백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가족을 잘 돌보고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지난 12월11일의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에서는 9명의 副會長을 새로이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張禮準회장

명예회장 1인, 회장 1인, 부회장 19인, 감사 2인으로 회장단의 조직이 24回까지 확장되었고 좀더 젊고 활기찬 同窓會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韓國의 경영학과 경제학의 발전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던 장학재단 설립을 구체화하여 교수들과 후배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원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各同期會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유기적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同窓會가 지향하는 뭉치자! 돕자! 빛내자! 품은 뜻이 더욱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금」 2억造成

齒大회장 **李春根**

동창회 일을 해보니까 모교를 돕는 일이나 동창간의 친교를 하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모교를 돕는데 있어서는 연중행사 모양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교수들의 연구연수회보조등 학교행사의 이것저것을 돕는 것이 마음 같아서는 좀더 많이 좀더 풍족하게 하고 싶으나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항상 아쉽습니다.

◇李春根회장

새해에는 우리가 기왕에 계획하고 작정한 특별기금 2억원이 성취되리라 믿고 온 임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특별기금 모금이 성취만 된다면 연회비와 합쳐서 모교를 돕는 일이나 동창간의 친교를 하는데 있어서도 전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90년도 모교 방문의날 행사에는 대구, 부산에서까지 동창들이 참여해 주어서 모교에서 하는 행사가 크게 빛났습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여 동창회 일이나 모교에서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동창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91년도에도 모교의 발전이나 동창들과 재학생 여러분들의 강건하심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새 會員名簿 발간계획

大學院회장 **金道昶**

새해를 맞이하여 同門인 博士및 碩士 여러분의 健勝과 서울大同窓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대학원 동창회는 1984년에 600면에 달하는 새로운 동창회명부를 발간하면서, 과거식의 本籍표시방식을 生年月日로 바꾸는 동시에 특히 박사학위논문제목을 실었더니 단순한 동창회명부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학술적인 문헌가치를 지니는 것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그후의 새 회원을

◇金道昶회장

넣은 동창회명부를 계획하고 있고, 종래대로 장학사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정기총회및 博士學位祝賀會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학원동창회는 大學院中心大學으로서의 서울대가 배출한 가장 성숙된 얼굴이며 이나라 최고의 두뇌의 집단이라는 위상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母校에 圖書지원 확대

保健大院회장 **金大奎**

신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모교개원 30주년을 보내고 이제 역동적인 장년의 모습으로 전체 동문들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동창회에서는 올 한해도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역량을 집결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991년도에는 동창회의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는 일에 주력하여

◇金大奎회장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며, 모교에 도서지원을 확대하고 재학생에 대한 각종 혜택의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동창회가 물심양면으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성과가 역시 우리 동문들의 친목과 협력에 그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새로운 동창회 회원명부 발간에도 심혈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冠岳會 올 예산 8억2천만원

10억基金 조성에 최대 力點

奬學金·교수 硏究費 대폭 증액

재단법인 冠岳會는 지난 12월21일 오후 6시 30분 리베라호텔에서 제46차 理事會를 개최하고 10억장학기금조성에 역점을 둔 19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관악회의 91년도 복지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을 합친 총예산은 수입 8억2천1백38만원, 지출 3억4천6백78만원으로, 當期예정 잉여금은 4억7천4백6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收入金이 기본재산 수입이자와 동창회전입 수입금을 합한 5억8천7백68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6천여만원이 늘어났다.

지출부문에서는 장학금이 연간 4천5백만원(1백만원×45명), 교수연구비가 5천5백만원(5백50만원×10명)으로 전년대비 6천5백80만원이 늘어난 1억원으로 모교지원부문이 파격적으로 강화된 것이 특기할만하다.

이는 10億장학기금조성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애초에 동창회가 약속한대로 모교지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분야의 증액을 위해 동창회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收益事業부문 예산을 보면 수입부문에서 2억3천3백7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천4백여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출면에서는 2억2천6백55만원으로 1천3백만원이 늘어나 지난해 4천2백여만원의 적자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7백여만원의 흑자편성을 보이고있다.

동창회 剩餘金 5억

관악회 財産으로 轉出

동창회는 지난 12월21일 리베라호텔에서 제11차 常任理事會를 열고 90년도 동창회 잉여금에서 5억원을 재단법인 冠岳會에 전출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동창회관 건립, 새 會員名簿발간에 이어 동창회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10억奬學基金조성이 마침내 결실을 눈앞에 두고있다.

次官級에 同門11명 기용

정부는 구랍 28일 改閣에 따른 후속조치로 차관·청장·도지사·시장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도 모교출신 동문들이 대거 기용됐는데, 정부발표에 의하면 이번 인사가 「각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직업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사를 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차관

농림수산부 李炳淅
상공부 朴鎔道
체신부 尹東潤
과기처 徐廷旭
공보처 李庚植

차관급

총리비서실장 康容植
행정조정실장 沈大平
해운항만청장 安相英
감사위원 朴成達

시·도지사

대구시장 李海鳳
충남지사 韓淸洙

다음은 이번 次官級인사에 기용된 동문들이다.

▲次官:농림수산 李炳淅(58년 法大卒)·상공부 朴鎔道(61년 法大卒)·체신부 尹東潤(61년 法大卒)·과기처 徐廷旭(57년 工大卒)·공보처 李庚植(59년 文理大卒)

▲차관급:총리비서실장 康容植(63년 法大卒)·행정조정실장 沈大平(66년 商大卒)·해운항만청장 安相英(63년 工大卒)·감사위원 朴成達(60년 法大卒)

▲시·도지사:大邱시장 李海鳳(67년 法大卒)·忠南지사 韓淸洙(62년 法大卒)

"發展하는 새해" 다짐

單大·地方同窓會 送年모임 성료

◇商大동창회 총회광경

▲商大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12월11일 오후 6시30분 힐튼호텔 컨벤션센타에서 금년도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0년도의 결산과 1억1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새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문 약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또 會則일부를 개정, 副會長수를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고 각 期에서 추천한 9명의 후보를 새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새로 선임된 부회장은 다음과 같다.

▲朴聖麒(한국바이린사장) ▲曺甲周(신송식품사장) ▲金昇政(유공해운부사장) ▲薛元亮(대한전선회장) ▲朴泰榮(대한교육보험부사장) ▲金德基(근화제약사장) ▲洪龍燦(우성해운부사장) ▲鄭建海(안건회계법인상무) ▲姜成遠(안건회계법인대표).

▲獸醫大동창회는 구랍 21일 동창회관 冠岳홀에서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임원개선을 겸한 이날 총회는 전임全東龍회장의 인사와 權宗國회장의 축사에 이어 90년도 결산과 91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期別로 구성된 전형위원단이 신임 회장단을 선임했는데, 새로 동창회장에 선임된 金範來동문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단이 어려운여건 속에서 이루어온 업적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문들의 결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金範來회장

이날 선임된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金範來(56년卒·농림수산부 동물검역소장) ▲부회장:申光淳(56년卒·모교敎授) 金祚應(57년卒·고려동물약품사장) 羅相植(57년卒·쌍마기업사장) 徐廷範(60년卒·제일화학사장) 趙休翼(63년卒·중부가축병원장) 李角模(69년卒·동방사장) ▲감사:李孝春(58년卒·한국승마협회이사) 千炳得(63년卒·축협중앙회감사) ▲총무이사:李文漢(73년卒·모교수의大)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孝益)는 지난 12월20일 오후7시 시내 퍼시픽호텔 3층 장미룸에서 「送年모임」을 가졌다.

회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梁承現간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회는 李孝益회장의 인사에 이어 본회吳寅泳사무처장의 동창회현황 및 美洲지부 순방보고, 吳相洛 전 경영대학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그후 대학원 경영학과 자치회장에 대한 奬學증서 전달 그리고 영구이사 및 박사학위 취득동문에 대한 감사패·기념패 수여가 있었다.

공식행사가 끝난후에는 만찬과 함께 경품추첨을 하는등 선후배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保健大學院동창회(회장 金大奎)는 구랍6일 호텔 롯데월드 에메랄드룸에서 동문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金회장은 「올해로 보건대학원동창회가 30주년이 되는만큼 이제 보다 성숙한 자세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업무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9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유공동문들에 대한 감사패, 박사학위취득동문들에 대한 기념패 전달도 있었다.

▲行政大學院동창회(회장 俞尙根)는 12월7일 동창회관 5층 冠岳홀에서 임시총회 및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원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91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동창회창립 30주년 기념論叢(위원장 申昌雨) 발간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신임吳錫泓행정대학원장이 참석, 「동창회가 활성화하는 만큼 모교발전에 보다 기여해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동창회 釜山지부(회장 宋斗灝)송년의 밤 행사가 구랍 11일 부산상공회의소 商議홀에서 동문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宋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동창회의 단합과 활성화를 위해 힘을 아끼지 않을것』이라며 『동문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으뜸가는 支部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모임은 7년여만에 지부활성화를 기치로 재도약을 다짐한 신임 회장단의 적극적인 열의와 동문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북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동창회 光州지부는 지난 12월6일 무등산온천관광호텔에서 동문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활동이 부진했던 全南지부를 발전적으로 해체, 光州지부로 재편하여 보다 활성화하는 동창회가 될것을 다짐한 이날 모임에서는 즉석에서 2천여만원의 찬조금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洪承敏(41년醫大卒·洪안과의원장) ▲수석부회장:李光國(49년工大卒·三能건설 대표이사) ▲부회장:吳炳文(52년師大卒·전남大총장) 崔鍾洙(56년 文理大卒·전남일보사장) ▲상임부회장:李乃均(56년 商大卒·삼화도기대표) ▲상임이사 朴誠燮(72년 法大卒·무등일보사장) ▲감사:金后坤(54년 藥大卒·우정약국사장) 崔秉秀(60년 法大卒·광주생명보험대표이사)

12·27 改閣으로 立法·司法·行政 3府首長 서울大人이

副總理 2명등 동문 17명 새內閣 입각

國會議長 朴浚圭 〈48년 文理大卒〉
大法院長 金德柱 〈56년 法大卒〉
國務總理 盧在鳳 〈57년 文理大卒〉

이번 12·27개각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大출신 同門들이 명실공히 立法·司法·行政 3府를 이끌어가게 됐다. 작년 5월29일 朴浚圭(48년 文理大卒)동문이 제14대 國會議長으로 선출된데 이어 12월10일엔 金德柱(56년 法大卒)동문이 大法院長에 임명됐고, 이번 改閣에서 盧在鳳(57년 文理大卒)동문이 國務總理에 취임하면서 이나라를 이끌어갈 3府요인이 모두 서울大人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朴浚圭국회의장

◇金德柱대법원장

◇盧在鳳국무총리

지난 90년도는 서울대인의 면모가 다시한번부각된 元年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격변이 예고되는 91년도에 서울대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한해였다.

정부는 구랍 27일 국무총리와 統一院·外務등 10개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대폭적인 改閣을 단행, 국무총리에 盧在鳳동문을 임명했다.

이날 내각개편에서는 올해부터 부총리를 겸하게 되는 통일원장관에 崔浩中(56년 文理大卒)동문을 임명하고 外務·敎育·體育·商工·勞動·交通·遞信部와 公報·報勳處등 10개 부처의 장관을 새로 임명한데 이어 서울시장, 청와대비서실도 대폭 개편했다. 이번 개각으로 9명의 동문이 새로 입각했으며, 8명의 동문이 유임돼 총17명의 서울大人이 內閣에 포진하게 됐다.

이번 총리에 취임한 盧동문을 중심으로한 내각진영을 주위에서는 『혼미한 세태를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의 우수한 관리능력과 참신한 미래화적 비전으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진용』이라고 평가하듯이 그 어느때 보다 이상적인 구성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14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朴浚圭동문은 모교敎授를 거쳐 5대 國會에 진출한 이래 6·7·8·9·10대 의원을 지내며 13대 국회에서 민정당대표위원을 역임하는등 요직을 두루 거친경륜으로인해 자타가 공인하는 立法府의 首長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10일 司法府를 이끌어갈 大法院長에 기용된 金德柱동문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정치적 외압에 의연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사법행정을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할만큼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최적자라는 평가 속에서 첫해를 맞았다.

이렇듯 3府요인이 모두 서울大 同門이라는 사실은 그간 반목과 제位相 찾기에 급급했던 정치기류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盧총리의 소견처럼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정치권력의 非집권화, 행정권한의 대폭적인 민간이양추구로 인한 國民政治구현에 두겠다』고 한것을 볼때 立法·司法·行政의 首長을 맡고 있는 세동문이 이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토대가 근원적으로 마련됐다는데 우리 同門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崔浩中부총리

◇李相玉외무

◇朴哲彦체육

◇李鳳瑞상공

◇崔秉烈노동

◇林寅澤교통

◇宋彦鍾체신

◇崔昌潤공보처

◇朴世直시장

◇丁海昌실장

◇鄭鎬泰위원장

프로필

金德柱 大法院長

충남 扶餘產으로 大法官중 서열1위인 고시 7회. 풍부한 사법행정경력을 갖춘 인물로 법률지식과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評이다. 81년 대법원판사로 임명됐다가 임기 만료로 在野생활을 하다 88년6월대법관에 재임명될 정도로 신망을 얻고 있다. 그를 두고 법조계에서는「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자」라 할만큼 향후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명제를 풀기에 적임자라는 것이다. 취미는 테니스.

盧在鳳 國務總理

모교 敎授재직시절부터 현실정치에 항상 관심을 피력해온만큼「현실과 이상을 적절히 조화시켜 國政을 풀어나갈만한 인물」이라는 評. 귀족풍에 자기주장을 분명히 밝히는 소신때문에 간혹 의견충돌도 있으나 확고한 이론에 바탕한 논리전개로 상황을 풀어간다. 뛰어난 감각으로 학자출신답지않게 치밀하고 노련한 업무추진솜씨를 보여온 盧총리는 부인 池蓮月여사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있다.

入閣同門 명단 (고직新任)

직위	이름	학력·약력
총리	盧在鳳	57년文理大卒·모교敎授·대통령비서실장·政博
부총리(기획원)	李承潤	51년文理大·西江大경상대학장·민정당정책의장·經博
부총리(통일원)	崔浩中	56년文理大卒·상공부차관·외무부장관
외무	李相玉	57년文理大卒·외무부차관·駐제네바대사
재무	鄭永儀	59년文理大卒·산업은행총재·증권감독원장·행정학박사
문화	李御寧	56년文理大卒·조선일보논설위원·梨大교수·文博
청소년체육	朴哲彦	65년法大卒·대통령정책보좌관·정무1장관
농림수산	曺京植	59년商大卒·해운항만청장·교통차관·환경처장관
상공	李鳳瑞	55년商大·대통령경제비서관·동자부장관·經博
노동	崔秉烈	64년法大卒·조선일보편집국장·공보처장관
교통	林寅澤	63년法大卒·공진청장·상공부차관
체신	宋彦鍾	60년法大卒·내무부차관·전남도지사
과기처	金鎭炫	58년文理大卒·동아일보논설주간·행정개혁위원
환경처	許南薰	62년法大卒·공진청장·대전무역박람회사무총장
공보처	崔昌潤	66년文理大卒·문공부차관·대통령정무수석·政博
정무2	李季順	52년師大卒·모교敎授·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법제처	崔相曄	61년法大卒·大檢공안부장·大檢차장

大統領비서실장 서울市長도 新任

지난 12·27개각과 함께 朴世直(60년 文理大卒)동문이 서울市長에, 鄭鎬泰(61년 文理大卒)동문이 비상계획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비서실도 대폭 개편했는데, 신임비서실장에는 丁海昌(60년 法大卒), 정치담당특별보좌관에 崔永喆(58년 文理大卒), 의전수석비서관에 李丙琪(62년 法大卒), 사정수석비서관에 金榮馹(64년 法大卒)동문이 각각 임명됐다.

政治人에 바란다

—깨끗한 정치 具現과 國民 信賴회복의 길—

모든 議員은 名譽직·奉仕직으로

돈 안드는 選擧로 새 求心力 찾아야

時論

이제껏 國會는 「그저 그러려니…」했었다. 建國 40여년간 過도 많고 非도 적지 않았던 정치전당이어서 그 업적과 존재성에 선뜻 合格판정을 내리기는 언제나 어려웠던 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잘 봐주어야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잖느냐」는 정도가 아마도 평균점수였다고 해서 무방할 것 같다.

한데 그 位相은 요즘 들어 더욱 「형편없이」 전락되었다. 얼마 전 서울大의 한 연구소가 실시한 國民意識조사에서는 成人의 70% 이상이 國會議員을 가리켜 「가장 부패한 계층」이고 「가장 싫은 직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여론들 역시 大同小異. 그래서 議政의 人氣는 아주 바닥권으로 「平價절하」된 상태다.

사실 6共의 13대국회와 더불어 국민들은 民主政治 개화의 희망을 부풀렸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政治·보통사람들의 명예로운 奉仕者로서의 議員像을 바라보리라고 믿었다. 한데 이젠 그 逆進현상이 하도 심하여 정치나 정치인 하면 「신물이 난다」는 뜻이 그 切下속에 깔려 있는 것이다. 뭣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與小野大이던 초기시절의 13대 國會는 우선 교착·정체의 절름발이 현상으로 눈살이 찌푸려지게 했다. 3黨통합의 「巨與」이후는 국회의 主導勢인 民自黨이 몸살의 후유증과 「大權의 熱病」을 1년내내 앓았고 그 통합에서 온 辭退정국으로 野黨들은 한때 할 일을 팽개쳤다. 地自制절충으로 여야가 간신히 다시 合席하긴 했으나 그 때문에 151회 이번 定期國會는 1백일의 會期중 70일은 「허송」으로 까먹었고 해낸 일이란 고작 법정시한에 몰린 예산안의 졸속처리와 마지막 남은 19개법안을 30초간에 「뚝딱」해버리는 번개式 무더기 통과뿐이었다.

深夜의 막판 드잡이질은 더욱 가관이었다. 秋穀수매 동의안을 둘러싸고 「최선의 시범」이라도 보이려는듯, 전격가결의 선포와 동시에 議長席이 점거되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그래서 시작도 끝도 跛行으로 일관된 「천하유일」의 부끄러운 국회상을 再演시키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챙겨야 할 자기몫은 빈틈없이 다 챙겼다. 예결위의 경우 「民願사업」이라는 명분과 함께, 자기의 앞날·次期의 재선을 보장케 하고 잘 하면 「떡고물」까지 생길 수 있다는 출신지역구 사업비를 끼워넣기式으로 제각기 增額, 막판 나눠먹기 로비활동으로 저의 「한件」씩을 올렸다. 이런 善心性사업비증가액은 이번에도 약 50개항목 4백50억원이나 된다.

身邊的인 이해와 결부된 또 하나의 「탐욕」, 그것은 몰염치한 22·8% 歲費인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장기 공전과 결석으로 국사마저 제대로 못돌본 처지라면 그대로의 세비를 받는 것도 민망스러운 처지이다. 한데 자그만치 29·4% 引上案을 22·8%로 조정, 슬쩍 올려버린 여야 의원들의 짝짜꿍이는 「小貪」이외에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도 이 부분에 관한 豫算案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역을 안 밝힌 채, 비등했던 다수 국민의 눈초리를 아랑곳 없이, 쉬쉬하는 모습으로 그랬다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이 안간다.

그 결과 국회의원들은 현행 月 4백60만5천원에서 1백 5만원이 더 오른 5백65만 9천원을 받게 됐으니 勤勞者들의 임금인상까지 한자리數로 제한하려 했고 또 대부분이 그렇게 된 현실과는 어떻게 「調和」될 수 있는지 正答찾기가 곤란해진다. 그리고 한달 인상액이 자그마치 1백5만원이라면 웬만한 직장 中堅급들의 월급 전액과 맞먹고, 1인당 국민소득 비율差로 대조할 때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 美國의 議員들 보다 더 높은 후대를 自作해낸 것이다. 부분적으로나마 내년부터 처음 지급되는 老齡수당이 불과 「月 1만원」임을 헤아리면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느낌을 참을 수 없게 한다.

한데 그 過多한상에 한수 더 떠서 다음은 1백여명 議員들의 「무더기 外遊바람」보도가 세인의 눈총을 또 받게 하였다. 지난 여름 野圈의원들의 사퇴파동으로 계획된 外遊를 못한데서 남은 5억1천만원의 예산불용액을 기일내(91·1·15)에 소진하며 즐기려는 발상에서 정기 국회가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명분은 10여개 팀 모두가 議員외교활동 세미나참석, 친선협회 참여등으로 그럴싸하게 주며낸 모양이다. 하나 그 무렵이면 방문상대들이 대부분 연말연시 휴가철인데다 면담준비의 부족등으로 실효없는 形式행사로 끝날 공산이 큰만큼 부동반의 한가로운 觀光여행을 일삼으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 그 진부나 행차여부야 어떠하든 남은 국고예산이라 하여 우선 쓰고 보자는 발상이 티끌만치라도 작용했다면 이는 분명히 「무분별한 낭비」에 속한다.

事例를 이처럼 묶어생각하면 어떻게 이다지도 국민과 도덕성을 깡그리 무시하다시피 하는 「강심장」이 있을수 있는지, 이제는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오히려 부끄러워지기만 한다. 물론 모든 議員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그와는 대조적으로 私心·邪心 없는 봉사와 모범으로 훌륭하게 議政활동에 정진하고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사 일부의 主導에 의한 過慾 탈선 落點이라 하더라도 그 心行이 物慾이나 金慾앞에 醜할진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신망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對話와 妥協이 힘들다고 制度권내의 政黨과 議員들이 것하면 불법적인 「議會해산」을 주장하거나 국회를 볼모로 잡아 기능마비를 초래케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는 그 반면, 多數派라 하여 小數존중의 원칙을 저버리고 날치기 횡포를 일삼는 常軌이탈 역시, 民心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오매불망, 大權에만 눈이 어두워 國政·國利·民福보다 黨利黨略을 앞세우는 근시안적 병폐나 公理와 大事를 저버리고 我執에 사로잡히는 그런 姿態 또한 고와할 국민은 거의 없다 하겠다.

이제 13대국회는 길어야 殘餘임기 불과 1년남짓한 때름이다. 또 새해부터 地方자치제가 시행되는만큼 예전처럼 地域區 일에 골몰하기보다 國民의 代表다운 큼직한 공헌에 專念하는 전환적 처신을 해가야 할 참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아 政治信賴의 높은 城塔을 쌓아올리느냐는 대목이 가장 큰 숙제로 부각된다.

그렇다고 국회의원數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 서민층 아무도 반가워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수를 줄여 質的으로 우수한 국민의 참된 대변자·봉사자들이 앞줄로 나서게 해야 할 것을 바라는게 현실이다. 요즘 흔히 쳐들리는 일부 지도자의 「後退論」이나 政治「새世代待望論」같은 것은 좋든 싫든 우리의 정치발전과정이 變動단계로 들어섰음을 뜻하는 대세의 한 표상이라 할 것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참신하고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들이 대표로 등단할 수 있게 하려면 첫째로 金力에 좌우되는 선거풍토부터 완벽하게 刷新해야 한다. 이는 이나라 정치문화의 청신한 발전과 公明한 사회정의구현의 소중한 열쇠에 속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체의 선거운영을 철저한 公營制로 하고 국고자금 이외의 금력과 권력의 간여를 제도적으로 차단시킬 일이다. 기탁금같은 제한조건을 철폐함은 물론, 국사범이 아닌 有資格者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입후보하여 유권자의 심판앞에 설 수 있게 함이 옳을 것이다.

정치의 부패란 원래 돈으로부터 비롯된다. 「6當5落」이니 「8당7락」이니 한는 그 돈의 마술은 유권자의 총명까지 지배케 하여 選擧의 공명성을 흐려놓기 일쑤다. 또 엄청난 金品투자로 당선된 그 사람들이 제 밑천을 봉창하고 빚진 논을 갚으려면 아무리 깨끗했던 손이라도 내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 바로 타락과 부패, 부정과 혼탁이 政街는 물론 社會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연유가 있다.

오는 3월말께 실시될 地方의회議員선거는 바로 이 金權에 의한 「검은 選擧」양상을 결정적으로 타파해야 할 긴요한 歷史性을 지니고 있다. 이미 광역·기초를 합쳐 5천여명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전에서 경쟁자들이 투입할 선거자금은 3~5조에 달하리라는 추산들이 나돈다. 金力선거 타락선거의 재판을 예고하는 것과 진배없는 이 추산이 적중할 경우, 「돈노름선거」 부정선거가 지방으로까지 확산 고질화하여 이땅에서 깨끗한 정치봉사자 참된 公職者의 선출은 영영 공염불의 비극이 되고 말 것이다.

진정 아쉬워지는 그 處方策의 일환으로 여기 하나의 緊急제안이 둘째로 떠오른다. 앞으로 국민이 선출하는 모든 公職者의 신분을 名譽職으로 돌리자는 意見이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의원이든 그가 어떠한 직책에 있든, 직무수행에 필요한 實費이외 보수는 물론 일체의 金權이나 勢道가 없는 무료봉사자로 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아마도 「政治업자」나 「공천장사」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양상에서 논공과 관권에 의한 不正 타락은 없어지고 부질없는 지역감정이나 過熱현상도 대부분 잠재워질 것이다. 선거후면 으례히 도지는 訟事 후유증같은 큰 탈을 면하게 되며 봉사풍조 확산에 따른 心性의 순화, 秩序의식의 향상도 바라볼 수 있을 법하다.

좀 더 값지게는 政商과 混濁을 싫어하고 돈이 없던 참된 양식가 지식인 전문인들이 國政무대로 모여들어 명예를 걸고 특권없는 奉仕정치활동을 펼칠 길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地方의원이나 기관장의 경우는 프랑스처럼 세금을 축내는 일없이 共同體에 대한 책임과 헌신으로 내고장 일에 봉사하는 영구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도 있게 된다.

아직은 우리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란 大統領 한분과 국회의원 2백99명 뿐이다. 그러나 올봄이면 地方의회議員만 무려 5천1백43명이 늘고 다시 내년엔 몇백명의 자치단체장들이 피선공직자로 더 붙어난다. 바야흐로 참다운 民主政治의 영원한 기반과 뿌리다짐, 토양정지를 하게 되려는 판국이다.

새-民主政治時代로의 이 명백한 轉機와 발전예고는 틀림없는 歷史의 한 紀元이며 瑞相이다. 그 앞에 과감한 전진과 개혁을 서슴치 말아야 한다. 국민이 信賴하는 政治풍토의 확립, 참신한 人物들에 의한 政治求心力의 형성, 돈 안드는 選擧制의 구현, 모든 선출 公職者의 名譽職 奉仕職化는 이 계제에 꼭 서둘러야 할 挑戰과제이다.

改善·개혁이란 원래 빠르면 빠를수록 보다 우람한 열매를 손쉽게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힘쓰고 국민도 合쳐서 政治의 새 地平을 열어야 할 일— 국정의 앞날이 후련해지려면 이보다 더 간절한 요체는 없어 보인다. 특히 有權者들이 「觀衆」으로만 머무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尹 宗 鉉

〈46년 商大卒·平和文化研究院長·本報 編輯委員〉

▲柳達永(36년 農大卒・모교 명예교수)‖전국농업기술자협회 총재로서 12월6・7 양일간 서울어린이회관 무지개극장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제31회농업기술자대회와 농업기술개발 토론회를 개최.

▲池憲澤(47년 齒大卒・亞太치과연맹회장・本會理事)‖12월8일 대만에서 중화민국 치과의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同의학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됨.

▲金東晟(49년 師大卒・명지대교수)‖영문학자이자 피아니스트인 金동운이 최근 열린 KBS교향악단 운영위원회에서 새 음악감독으로 임명.

▲南廣祐(50년 文理大卒・한국어문교육연구회장)‖11월21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고희축하연을 갖고 음운・문법・어휘・국어사등의 분야별로 72편의 박사학위논문을 모아「국어학관계 박사학위논문 요약집」을 出刊.

▲趙永植(50년 法大卒・경희대총장・本會理事)‖11월29일 국제평화와 친선에 기여한 공으로 소련청년연합회가 수여하는 최고훈장을 받음.

▲鄭回甲(51년 音大卒・모교 명예교수)‖한국음악협회장으로서 제16회 세계음악의 날을 맞아 11월30일 백남빌딩 19층 신세계홀에서 세미나와 한국음악대상 및 대한민국 작곡상 시상식을 가짐.

▲李漢彬(54년 文理大卒・前 부총리・本會理事)‖

년도 대한민국문화상 일반부문 본상을 수상.

▲盧載源(55년 法大・前외무부 본부대사)‖11월2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駐北京대표부초대대표에 임명.

▲文尙鎬(55년 師大卒・정남산업회장・本會理事)‖日本 九州産業대학의 방문교수로 초빙돼 금년 1년간 강의를 맡음.

▲韓東元(56년 法大卒・한국언론연구원장・本會理事)‖12월10일 열린 法大85同門會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

▲李宗勳(57년 工大卒・한국전력기술사장)‖11월27일 뉴월드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로젝트관리기술회 창립발기인 대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

▲尹炳奭(57년 文理大卒・인하대교수)‖회갑을 맞아 12월9일 롯데호텔 3층에서 기념논문집「한국근대사논총」을 봉정받음.

▲金永植(57년 師大卒・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本會理事)‖12월12일 모교 호암생활관에서 회갑기념논문집을 봉정받음.

▲李景勳(58년 工大卒・대우중공업사장・本會理事)‖11월30일 벨기에 제조산업의 부흥전기를 마련한 공로로 국왕공로훈장을 받음.

▲明宜植(58년 農大卒・축협중앙회장。

극장에서 90전통국악대제전을 개최.

▲金鎭泰(58년 齒大卒・母校齒大教授)‖12월14일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에서 華甲을 맞아 기념논문집을 봉정받음.

▲金見鎭(59년 文理大卒・충남대교수)‖한국뷔히너학회장으로서 최근 同학회지「뷔히너와 현대문학」3호를 出刊.

▲李升煥(59년 法大卒・특허청차장)‖12월13일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의 최고 경영자과정에서「중소기업과 산업재산권」을 주제로 강연.

▲黃秉冀(59년 法大卒・梨花女大教授)‖지난해서울전통음악연주단 단장으로서 평양을방문, 남북문화교류의 물꼬를튼 공로로 한국공연예술평론가협회가 뽑은「올해의 예술가」로 선정.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3回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車京守(59년 師大卒・母校教授・本報編輯委員)‖전국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장으로서 11월29일 충남 온양 제일호텔에서「읽히는 대학신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朴媛實(60년 醫大卒・박산부인과의원장・本會理事)

제도를 알리고 한미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미육군성 명예훈장」을 받음.

▲宋東準(60년 文理大卒・母校人文大教授)‖최근 열린 한국독어독문학회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

▲康賢斗(61년 文理大卒・母校社會大教授)‖최근 열린 한국방송학회 총회에서 제3대회장으로 선임.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교수)‖최근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새회장으로 취임.

▲鄭銶永(62년 法大卒)‖최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檢察總長으로 영전.

▲朴英漢(62년 文理大卒・母校社會大教授)‖11월24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대한지리학회 총회에서 최초로 직접선거, 제15대 회장으로 선출.

▲金淇春(62년 法大卒・前검찰총장)‖12월초 임기만료 퇴임과 함께 검찰총장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청조근조훈장을 받았으며 조선시대의 형사제도를 개관하고 經國大典중 형전부분을 번역풀이한「조선시대형전」이란 저서도 출간.

▲李文雄(65년 文理大卒・母校社會大教授)‖최근 열린 한국문화인류학회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임.

▲鄭鍾旭(65년 文理大卒・母校社會大教授)‖한국사회주의체제연구협의회장으로서 11월17일 한국종합전시관(KOTRA)에서「韓蘇수교와 東北亞정치경제질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洪淳昊(66년 文理大卒)‖모교 ROTC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금년 1월1일자로 준장으로 진급.

▲李孝益(68년 經營大學院卒・삼익악기회장・經營大學院同窓會長)‖12월8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제11대 국회의원 헌정동우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

▲金炳國(70년 法大卒・원광대교수)‖최근「커뮤니케이션사상사」를 번역, 출간했으며 호남언론학회장을 맡아「지역감정과 정치・언론」세미나를 개최.

▲李埰昊(70년 行政大學院卒)‖일본 북해도대학동창회 회장직을 맡아보며 韓一양국의 교류증진을 위해 최근 모교와 일본동창회를 방문, 유학생 및 연구생교류를 협의.

▲金弘殖(71년 經營大學院卒・금복주회장・本會理事)‖金福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11월21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제4회 금복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가짐.

▲洪周奉(73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

Covic International 사 초청으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플레이홀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피아노 리사이틀을 가짐.

▲朴世勳(78년 醫大卒・박세훈피부과의원장)‖12월14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올란도시의 Hyatt Regency Grand Cypress에서 개최된「鋼층기 레이저」세미나에 참석.

揭示板

結婚

同窓會館 冠岳臺

△장동환(88년 社會大卒) 군・홍승미 양‖1월5일 오후2시.

△구용회군・유혜란(88년 人文大卒) 양‖1월5일 오후3시30분.

△이제근(89년 社會大卒) 군・정한섭양‖1월6일 오후1시.

△배종진(89년 農大卒) 군・김효신양‖1월6일 오후2시30분.

△안광일(86년 工大卒) 군・김은주 양‖1월12일 12시.

△권종선군・홍지영(87년 音大卒) 양‖1월12일 오후1시30분.

△박기영(85년 社會大卒) 군・김성은양‖1월12일 오후3시.

△신동수(89년 人文大卒) 군・임현주 양‖1월12일 오후3시.

△김대연(88년 醫大卒) 군・김종주(90년 藥大卒) 양‖1월13일 오전11시30분.

△김용기(83년 人文大卒) 군・홍영미 양‖1월13일 오후1시.

△이용우(86년 社會大卒) 군・김경애 양‖1월13일 오후2시30분.

△이충기(人文大 재학중) 군・박춘단양‖1월19일 오후12시30분.

△이상규(87년 工大卒) 군・강진아 양‖1월19일 오후2시.

△이성윤(88년 人文大卒) 군・박지영양‖1월19일 오후3시30분.

△박세길군・이춘자(88년

캐나다支部 安丙元회장

「우리의 소원…」 작곡, 勳章받아

토론토 중심으로 8백여 同門 굳게 結束

同門을 찾아서

최근 여러부문에 걸쳐 南北往來가 잦아지면서 世人들의 관심이 統一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월9일부터 분단후 처음으로 서울서 南北 國樂人들이 함께 펼친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에서도 南北人들은 입을 모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이어지는 통일의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和合의 한마당을 이루었다.

47년 母校 音大 재학시절 先親의 글을 받아 동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을 作曲했던 安丙元(50년 音大卒) 동문은 40년이 흐른후에야 비로소 統一로 향한 싹이 튼것 같다며 고조된 통일 열기를 감격해 했다.

『47년 KBS의 前身이었던 서울중앙방송의 PD로 있던 친구와 함께 3·1절 특집으로 꾸밀 어린이시간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지요. 동이서 여러모로 고민한 끝에 노래극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비용이 없어그 대본을 선친께 부탁드렸었습니다.』

安동문의 先親은 夕影 安碩柱(50년 별세)씨로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미술은 물론 언론·문단·영화·방송등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었다.

이렇게해서 美軍政期였던 그당시 독립에대한 염원을 담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주제가로 꾸며진 노래극이 어느 父子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염원을 담은 노래로 애창되는 「우리의 소원」의 작곡자인 安동문이 동창회의 캐나다支部 會長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支部는 安동문이 거주하는 토론토를 중심으로 전역에 걸쳐 8백여명의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10년전에 창립된 탄탄한 조직이다.

주로 동문들간의 親睦을 위주로 하는 것이 同窓會 모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까지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행사를 펼쳐 교포사회에서 부러움과 함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캐나다 각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을 직접 방문하여 서로간의 우의를 다졌습니다. 제가 이처럼 돌아본 결과 느낀 점은 모교 출신 동문들이어디서나 상당한 기반속에서 지도급 人士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라며 가슴 뿌듯했던 기억을 되살린다.

安동문은 『이같은 결속력을 밑받침으로 매년 펼치는 장학사업은 물론 同門音樂會 개최와 가족야유회·골프대회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밝힌다.

이밖에 임원진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행사 및 사업계획에 대해 잦은 토론을 벌임으로써 支部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74년 캐나다로 이민간지 16년만에 세종문화회관측의 초청으로 고국을 찾은 安동문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송년연주회 지휘가 목적이었지만 남북전통음악제의 일정과 맞아져 더욱 뜻깊은 방문이 되었다고 한다.

『고국에 와서 보니 확실히 두텁던 통일의 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북음악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할때는 半통일이 된듯한 착각마저 들더군요.』

한편 安동문은 그동안 北韓에서 여러번 초청이 있었으나 서울이 고향인 자신이 1천만 이산가족을 제치고 먼저 갈수 없어 거절했다며 북한을 다녀온 교포들로부터 평양거리 어느곳에서도 「우리의 소원」을 들을 수 있었다는데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소개한다.

이번 방문으로 安동문은 대통령으로부터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는 분단의 아픔과 민족의 통일염원을 담은 우리시대의 노래라는 치하와 함께 寶冠文化勳章을 받았다.

40년전 뿌려진 통일의 씨앗이 점차 무르익어가는 통일열기와 함께 꽃이 만발하게 될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며 安동문은 「이 노래가 흘러간 노래가 되어 빨리 잊혀지게 되는 것이 소원이라며 통일이 되는날 남북합창단이 함께선 판문점에서 이 노래를 연주해 보고 싶다」고 한다.

安동문은 盧瑾寧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吳蘭姬 기자〉

訃音

▲車相轅(36년 文理大卒·모교명예교수)‖11월29일 서울원자력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 향년 80세.

중국문학자인 車동문은 48년부터 모교 교수로 봉직.

▲金允行(43년 法大卒·前대법관)‖11월29일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 향년 70세.

▲金道一(50년 醫大卒·대한나관리협회 나병연구원장)‖12월8일 서울중앙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 향년 65세.

金동문은 평생을 나병퇴치와 연구에 힘써왔다.

▲趙英來(69년 法大卒·변호사·本會理事)‖12월12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폐암으로 별세.

趙동문은 82년 개업후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으로서 12월11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일본정부가 수여하는 勳一等旭日大授章을 받음.

▲崔鍾起(54년 法大卒·母校敎授)‖한국국제관계연구소 이사장으로서 12월1일부터 10일까지 소련과학원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와 공동으로 소련 타슈켄트에서 제1차 韓蘇원탁회의를 개최.

▲鄭漢模(55년 文理大卒·前 문공부장관 本會理事)‖11월24일 시집 「原點에 서서」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90

本會理事)‖지난 9월 수해로 가축을 잃은 경기도 양축농가에 「가축보내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경인일보사를 12월1일 방문, 가축입식성금 1억원을 기탁.

▲趙東元(58년 法大卒·本會理事)‖최근 사단법인 海外文化交流協會 이사장에 취임. 주소는 서초구 방배3동 984-1 머리재빌딩 409호. 전화 585-5288.

▲李桓儀(58년 師大卒·백제문화개발연구원고문·本會理事)‖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장으로서 12월14일 문예회관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으로서 12월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AIDS의 날」을 맞아 신라호텔에서 「여성과 AIDS」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兪東濬(60년 農大卒·本會理事)‖11월27일 열린 사단법인 韓國單味飼料協會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상근부회장에 연임.

▲李英俊(61년 法大卒·서울고법부장판사겸 의정부지원장)‖한-미 야전군사령부에서 사령관 윌리엄 카펜터중장으로부터 미군 법무관에 한국법

▲宋相現(63년 法大卒·母校 法大敎授)‖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

▲李揆成(63년 商大卒·前재무부장관·本會理事)‖내년 3월 개교하는 충남 논산소재 建陽대학의 교수직을 맡아 경제학을 강의할 예정.

▲李鍾律(64년 文理大卒·前정무장관)‖새정치연구소장으로서 그간 英文으로 쓴 논문과 연설문 등을 모아 「轉換期의 한국과 세계」라는 책자를 최근 출간.

원 유전공학센터)‖90년 1월 국내 최초로 담배잎에서 당뇨병 치료용 인슐린을 추출하여 12월7일 한국과학기자클럽이 수여하는 제6회 「올해의 과학자」상을 수상.

▲金相喜(73년 法大卒)‖대전지방검찰청 瑞山지청장에서 11월5일자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3실장겸 진주지청 부장검사로 전보.

▲崔圭八(74년 藥大卒)‖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서 최근 특허·상표등 공업소유권 업무를 대행하는 최규팔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 전화 556-4530.

▲方孝善(74년 音大卒·경상대교수)‖지난 11월10일 호주

人文大卒)양‖1월20일 12시.

△리범연(師大 휴학중)군·임윤옥양‖1월20일 오후1시30분.

△허진영(齒大 재학중)군·신성희양‖1월20일 오후4시30분.

△이승호(89년 人文大卒)군·권희경양‖1월26일 오전11시30분.

△정경구(87년 法大卒)군·김혜영(音大 재학중)양‖1월26일 오후1시.

△윤영석(84년 美大卒)군·강영순양‖1월26일 오후2시30분.

△김상도(89년 農大卒)군·김미숙양‖1월27일 오후12시30분.

△김오수(87년 法大卒)군·천계숙양‖1월27일 오후2시.

△이경원(醫大 재학중)군·김정해양‖1월28일 오후1시.

年會費 내주신 분

〈일반 : 11월 17일~12월 15일까지
이사 : 11월 17일~12월 15일까지〉

人名밑 원내 숫자는 卒業年度。

會長團

▲崔主鎬 회장 1백만원 ▲姜信浩 부회장 50만원 ▲李爽熙 부회장 50만원 ▲嚴宗鎭 감사 30만원

常任理事

▲李根洙 신문대학원동창회장 10만원

理事

◇工科大學 ▲李源弘(61) 서강대이공대교수 ▲韓泰熙(50) 금성사사장 ▲吳澤吉(70) 건축연구소「場」대표 ▲李逢春(73) 맥슨전자연구실장 ▲金 暐(61) 금상우일부장 ▲李 進(64) 경남대학교교수 ▲張東根(62) (전)동양나일론이사 ▲白士益(42) 동이광업콘설탄트회장 ▲崔壯宇(48) 홍익대학교공대교수 ▲成樂俊(67) 일진사장 ▲韓正錫(54)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고문 ▲申鉉直(68) 경맥시스템사장 ▲金寬旭(68) (전)대호건축연구소대표 ▲徐廷勳 동명공사사장 ▲曺圭完(55) 삼부산업회장 ▲朴享淳(65) 현대엔지니어링이사

◇農科大學 ▲金載正(53) 한국종묘협회회장 ▲張大錫(62) 쌍용농장사장 ▲金秉煥(57) 흥농종묘전무이사 ▲玄永柱(47) 한농종묘사장

◇文理科大學 ▲羅炳旭(49) 경북대문리대교수 ▲晋洋文(55) 새한종합상임감사 ▲河明熙(64) 연합통신전주지국장 ▲金世宗(57) 유공고문 ▲姜仁遠(65) 소청심사위원회위원 ▲趙甲玉(63) 대한교육보험상무이사 ▲許燕道(59) 부산지방국세청장 ▲金顯哲(57) 삼미정공전무이사 ▲盧在植(57) 원자력안전기술원전문위원 ▲金雲泰(48) 서울대행정대학원명예교수 ▲李昌洙(64) 삼익건설사장 ▲鄭根謨(55) 前과학기술처장관 ▲金珣模 우성실업사장

◇美術大學 ▲白泰昊(51) 이화여대산업미술대학원장

◇法科大學 ▲李炳守(62) 두산기계사장 ▲劉珏鍾(57) 동양화학부회장 ▲劉碩源(57) 선경부회장 ▲金濟浩(56) 코리아나투어여행사사장 ▲趙永植(50) 경희대학교총장 ▲崔錫旻(60) 한이산업사장 ▲柳重年(59) 웨스콘사장 ▲李淳雨(60) 변호사 ▲金榮珍(62) (전)내무부차관 ▲李大源(62) 홍익대명예교수 ▲崔箕善(73) 국회의원 ▲陳永培(61) 쌍용양회공업부사장 ▲姜信泰(69) 변호사 ▲朴濟千(64) 미주실업사장 ▲朴禹東(57) 대법원대법관 ▲李益雨(67) 진도전무이사 ▲金瑢泰(58) 국회의원

◇師範大學 ▲金俊文(52) 오성통진사장 ▲朴英子(50) 부산문현여중교장 ▲崔仙吉(64) 서울동대문구청장 ▲文允吉(60) 변호사 ▲延興淑(63) 새세대육영회사무처장 ▲李蓮儀(49) (전)경기여고교장 ▲李海龍(59) 라자가구사장 ▲李寅揆(55) 진성여중교장 ▲安柱昇(54) 전남대사대교수

◇商科大學 ▲鄭奎南(52) 한국F&B회장 ▲李敏雄(62) 호신물산전무이사 ▲李文相(55) 대양상호신용금고고문 ▲全泳周(56) 한외종합금융감사 ▲薛漢俊(48) 시리화사장 ▲文孔訓(64) 문영실업사장 ▲姜世中(65) 중소기업은행업무개발부장 ▲金湖錫(54) 원옥산업전무이사 ▲李滿基(57) 한양증권사장 ▲嚴興燮(52) 동남증권고문 ▲洪勝候(63) 대한조선공사전무이사 ▲金鎬泰(60) 대우조선공업전무이사 ▲金榮石(58) 대한교육보험사장 ▲鄭周炳(66) 새한섬유대표이사 ▲金鍾贊(63) 중앙개발사장 ▲崔景南(56) 한성투자금융전무이사 ▲鄭燦竣(55) 대륜상운대표이사 ▲徐泰植(63) (전)삼일회계법인회장 ▲金正基(65) 중소기업은행당산동지점장 ▲李德永 국민은행부산영도지점장 ▲宋彰鎬(56) 송우무역사장

◇獸醫科大學 ▲崔善佑(57) 대주산업종합연구개발담당상무

◇藥學大學 ▲朴建治(65) 동신제약생산담당상무 ▲池亨浚(57) 서울대생약연구소 ▲禹濟安(61) 현대유리공업사장 ▲崔賢植(64) 중외제약전무이사 ▲韓憙煥(50) 한정약국

◇醫科大學 ▲韓明烈(51) 한일의원장 ▲郭一龍(53) 서울대교수 ▲權寧助(62) 권조아과의원 ▲許鳳烈(67) 서울대의대가정의학과 ▲魏楨鳳(59) 전의원장 ▲邊尙鉉(57) 동우원병원이사장

◇齒科大學 ▲林采均(57) 임채균치과의원장 ▲閔丙淳(56) 경희대치과대학교수 ▲李起澤(69) 삼양치과의원장 ▲金海洙(49) 김해수치과의원장 ▲吳文甲(57) 오문갑치과의원장 ▲邊碩斗(57) 세브란스치과원장

◇大學院 ▲盧隆熙(55)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保健大學院 ▲具聖會(69) 서울보건전문대학학장

◇司法大學院 ▲張鉉台(70) 변호사 ▲徐建翊(65) 변호사 ▲李基榮(69)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李東洛(65) 대구고법부장판사 ▲崔慶元(68)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실 ▲孫健雄(67) 변호사

◇行政大學院 ▲張承台(61) 우전석유회장 ▲金學周(74) 동방아동복지회사무총장 ▲任斗淳(67) (전)감사원사무차장

◇環境大學院 ▲丁奎榮 신우엔지니어링회장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해서 지난해엔 同窓會가 크게 발전 하였습니다.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깊은 관심과 편달있으시길 바랍니다. 年會費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年初에 내셔서 同窓會가 벌이는 事業에 일조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倍前의 성원을 바랍니다.

— 會費내역 —

- 一般會員 ········· 1만원
- 理　　事 ········· 5만원
- 常任理事 ········· 10~20만원
- 監　　事 ········· 30만원
- 副 會 長 ········· 50만원
- 會　　長 ········· 100만원

一般會員

◇人文大學 ▲강인선(76) ▲이 철(79) ▲임현양(89) ▲정은진(89) ▲조희경(89) ▲한상인(79) ▲김화래(78) ▲박득송(77) ▲백경일(86) ▲하선규 ▲김동성(89) ▲이동일(89) ▲전승복(89) ▲조만수(89) ▲하태진(89) ▲황현길(89) ▲김현철(88) ▲박명룡(83) ▲예미란(85) ▲홍성민

◇社會大學 ▲권중일(77) ▲김기수(82) ▲김범조(78) ▲서정하(78) ▲이천복(78) ▲임병재(78) ▲장원영(81) ▲정대조(82) ▲송의달(86) ▲조명래 ▲최창순(77) ▲권용수(82) ▲김무기(77) ▲김완진(76) ▲유천일(82) ▲이태한(83) ▲임주환(73) ▲장의진(78) ▲배선영(82) ▲이진표 ▲최재호(76) ▲하태현(76)

◇自然大學 ▲권오섭(81) ▲김봉우(81) ▲손병기(78) ▲이재돈(82) ▲장영준(82) ▲김계조(78) ▲김부열(76) ▲유봉희(77) ▲이종순(83) ▲정 신(83) ▲정태반(79) ▲김무용(82) ▲허영덕(77) ▲이용재(78)

◇經營大學 ▲권행민(82) ▲서원석(77) ▲송영두(78) ▲윤승한(81) ▲김석주 ▲문영국(86) ▲박원우 ▲최창묵 ▲이영일(79) ▲추연우(81) ▲김원구(82) ▲송덕호(82) ▲안영균(82) ▲김상모 ▲김용건 ▲박방용 ▲이태성(87) ▲이성희(78) ▲이준헌(77) ▲

◇家政大學 ▲강연숙(78) ▲김복하(77) ▲신옥순(76) ▲이미식(77) ▲최혜숙(76) ▲김광옥 ▲강원나(75) ▲송경파(74) ▲이남희(73) ▲이혜련(77) ▲홍옥자(73) ▲황덕순(76)

◇工科大學 ▲강광언(65) ▲강명한(59) ▲강영일(66) ▲강춘식(59) ▲강헌식(80) ▲고광빈(66) ▲고원도(71) ▲곽영명(69) ▲구자영(58) ▲구형모(83) ▲곽태헌(73) ▲김경남(88) ▲김기증(57) ▲김명태 ▲김상호(81) ▲김영규 ▲김유언(57) ▲김화준 ▲박 찬(88) ▲박준호(77) ▲박희선(41) ▲배영호(70) ▲권영락(77) ▲김경민(78) ▲김계휘(62) ▲김관형(83) ▲김근배(68) ▲김대익(65) ▲김동성(82) ▲김동철(59) ▲김부언(65) ▲김문현(69) ▲김명균(78) ▲최하식(49) ▲강동구(82) ▲강윤중(69) ▲강행언(65) ▲경창성(75) ▲고영회(81) ▲곽세홍(79) ▲곽희근(52) ▲구자윤(75) ▲곽성용(81) ▲김건욱 ▲김경주 ▲김무천(67) ▲김상식 ▲김성우(63) ▲김영석(56) ▲김태현 ▲민만기(57) ▲박금철(51) ▲박동원 ▲방정은(70) ▲서주인 ▲권영선(55) ▲권호진(78) ▲김관석(78) ▲김광일(60) ▲김기홍(63) ▲김낙성(60) ▲김동상(59) ▲김명련(65) ▲김문철(73) ▲김동원 ▲김병래(58)

▲김병식(58) ▲김상태(62) ▲김세환(68) ▲김순근(53) ▲김연식(60) ▲김영권(74) ▲김영배(57) ▲김영천(65) ▲김용석(59) ▲김원명(65) ▲김원철(82) ▲서용권(74) ▲설영화(69) ▲성용선(69) ▲소봉영(56) ▲송남영(79) ▲송현석(66) ▲신영호(81) ▲신정철(82) ▲신홍균(51) ▲안인성(78) ▲안재휴(56) ▲안홍섭(79) ▲양재균(68) ▲염규섭(60) ▲손명호 ▲신영철 ▲이명효(67) ▲이완주(68) ▲이준의(64) ▲정민호(76) ▲정진환 ▲조원행(72) ▲최상규(73) ▲하석태(75) ▲하홍주 ▲한승희 ▲황상일(54) ▲오덕균(78) ▲오세기(69) ▲오승은(79) ▲오인식(66) ▲오정일(68) ▲원용민(58) ▲위영인(66) ▲유중희(57) ▲윤광언(68) ▲윤원영(82) ▲윤판식(59) ▲이경환(70) ▲이광재(58) ▲이규용(60) ▲이기웅(71) ▲이기호(77) ▲이병기(74) ▲이복춘(69) ▲이상기(51)

▲김상기(70) ▲김성주(58) ▲김수광(61) ▲김순호(65) ▲김영국(56) ▲김영룡(81) ▲김영복(62) ▲김영태(60) ▲김용표(81) ▲김원배(59) ▲서상호(69) ▲석현수(74) ▲성기초(55) ▲성활경(73) ▲손용길(78) ▲송창근(69) ▲송효성(75) ▲신재중(55) ▲신철순(63) ▲안용환(65) ▲안장훈(63) ▲안종렬(56) ▲양덕용(73) ▲엄의준(73) ▲손 옥 ▲송성헌 ▲이근수(58) ▲이봉춘 ▲이용선(78) ▲임달연 ▲정진건(70) ▲조문재(75) ▲최돈구 ▲최수형 ▲하응호 ▲한규환 ▲홍성우(86) ▲오구진(69) ▲오수근(61) ▲오의진(66) ▲오재화(66) ▲원종진(71) ▲유경근(61) ▲유천준(62) ▲윤철수(78) ▲이건이(67) ▲이관영(83) ▲이권중(83) ▲이길성(70) ▲이부섭(60) ▲이상호(56) ▲이상희(82) ▲이성진(69) ▲이수문(73) ▲이수일(67) ▲이승우(65) ▲이영근(76)

▲이상호(77) ▲이성기(58) ▲이성환(70) ▲이수웅(71) ▲이승련(77) ▲이시우(69) ▲이완기(59) ▲이용후(68) ▲이은재(56) ▲이인태(57) ▲이재건(63) ▲이재형(71) ▲이정의(83) ▲이종오(71) ▲이종하(66) ▲이진영(60) ▲이충길(68) ▲이한배(62) ▲이홍원(70) ▲임용규(56) ▲장기풍(77) ▲장상용(58) ▲장우진(78) ▲전봉각(59) ▲정건수(83)

▲이용우(81) ▲이우철(56) ▲이웅목(62) ▲이일신(52) ▲이재원(56) ▲이정로(76) ▲이종명(67) ▲이종원(68) ▲이창덕(58) ▲이태형(76) ▲이현혜(56) ▲이황주(75) ▲장기성(76) ▲장보영(70) ▲장세일(63) ▲장형순(63) ▲전찬진(69) ▲정교성(69) ▲정근창(76) ▲정도섭(66) ▲정석우(65) ▲정인목(60) ▲정치권(67) ▲정태홍(79) ▲정필영(60)

▲편도권(58) ▲한강수(78) ▲한병환(76) ▲한영진(83) ▲한희서(65) ▲현명효(73)

▲홍순삼(65) ▲홍인선(74) ▲홍호식(73) ▲황규덕(53) ▲황청정(68)

◇農科大學

▲임성규(49) ▲강명길(67) ▲권기대(89) ▲김동옥(58) ▲김봉용(74) ▲김영옥(68) ▲고효성 ▲구태의 ▲김만옥(66) ▲김봉국(65) ▲김목태(59) ▲박 훈(61) ▲박승훈(57) ▲박춘명(70) ▲변창선 ▲신대영 ▲신현경(69)

▲한화섭(49) ▲곽원석(75) ▲김나섭(59) ▲김두만(56) ▲김영국(72) ▲류중철(63) ▲구광주(71) ▲권정혁(66) ▲김영철 ▲김봉훈(72) ▲노준용 ▲박낙용(55) ▲박영원(56) ▲백양빈(64) ▲서상호(50) ▲신재길 ▲이 흡(39)

▲조용섭 ▲최 철(71) ▲최인화(62) ▲최현국(53) ▲한수남(53) ▲현 영(81) ▲현창순(68) ▲황건식(67)

▲진대경(89) ▲최유풍(66) ▲최필형(55) ▲하인환(55) ▲허유만(71) ▲현봉섭(69) ▲홍용선(72)

◇文理科大學

▲강근탁(72) ▲강세원(80) ▲강중열(66) ▲강복국(52) ▲강혜원(60) ▲구병우(75) ▲금웅명(74) ▲김덕룡(56) ▲김문창(65) ▲김상하(49) ▲김순민(60) ▲김안기(70) ▲김우철(71) ▲민동필 ▲김우경(77)

▲김영민(70) ▲김용석(75) ▲석창일(67) ▲송병섭(66) ▲송옥형(51) ▲심 훈(74) ▲안석주(67) ▲어용선(65) ▲오길록(68) ▲윤대욱(62) ▲이 경(73) ▲이경재(64) ▲이광호(75) ▲이석훈(62) ▲이정심(56)

▲김생기(65) ▲김시중(55) ▲김수진 ▲김일철(57) ▲계훈방 ▲김주년(57) ▲김진봉 ▲노무용 ▲박부서(71) ▲박정섭 ▲백운기 ▲송진혁(65) ▲신원영(67) ▲이진회 ▲장현갑(65) ▲정명희 ▲정지곤 ▲조명창(57) ▲황인출(81) ▲김영국(50) ▲김옥선(56)

▲이경형(70) ▲이대형(65) ▲이동화(72) ▲이정두(65) ▲이종렬(50) ▲이태근(60) ▲이혜봉(66) ▲장문영(65) ▲장진주(72) ▲정봉영(67) ▲정순원(75) ▲정해일(62) ▲조성혜(71) ▲차승회(69) ▲채선기(59) ▲최 환(65) ▲최순렬(82) ▲최준수(65) ▲최학근(50) ▲한성희(56) ▲홍희태(68)

◇美術大學

▲강남미(74) ▲고영실(72) ▲곽용태(66)

▲강명희(69) ▲고율한(62) ▲김 태(55)

"同窓會 발전은 同門의 회비로부터"

새해에도 精誠을 다해 納付 바랍니다

▲정규현(70) ▲정대환(69) ▲정부현(73) ▲정수린(61) ▲정의홍(67) ▲정인택(56) ▲정태수(55) ▲정태화(75) ▲정화준(73) ▲조규호(52) ▲조영일(67) ▲조용화(81) ▲조웅현(62) ▲조정희(58) ▲조한모(61) ▲주명로(67) ▲주홍수(76) ▲채장원(73) ▲최경락(74) ▲최기철(57) ▲최덕재(82) ▲최송화(71) ▲최인영(65) ▲최정욱(56) ▲최춘환(58) ▲최해환(63)

▲정혁수(57) ▲조성현(75) ▲조용재(55) ▲조은석(82) ▲조정호(69) ▲조태환(69) ▲조효상(70) ▲진승호(81) ▲최 무(69) ▲최기언(78) ▲최대현(56) ▲최양봉(55) ▲최인재(57) ▲최준균(82) ▲최태진(63) ▲최홍식(63) ▲하춘동(78) ▲한복규(68) ▲한재은(58) ▲허명렬(59) ▲홍성일(58) ▲홍영의(65) ▲홍재룡(71) ▲황 현(76) ▲황남구(55)

▲서내원(89) ▲손중한(73) ▲안세희(81) ▲유원석(65) ▲유철호(71) ▲윤상진(76) ▲이계홍(68) ▲이기락(73) ▲이남호(73) ▲이상억(56) ▲이승원(56) ▲이장희(59) ▲이종렬(60) ▲이정남(66) ▲이택구(59) ▲정근기 ▲정찬균(59) ▲조성환(71) ▲최은희 ▲홍철선 ▲임광환(59) ▲장우상(67) ▲정동포(69) ▲정시식(65) ▲정정민(66) ▲정휘영(73)

▲석준호(60) ▲송맹수(83) ▲여운철(50) ▲유위종(80) ▲유충렬(78) ▲윤의현(74) ▲이관중(67) ▲이남인(59) ▲이명규(73) ▲이수성(68) ▲이시철(53) ▲이영환(56) ▲이중훈(54) ▲이해동(72) ▲정기택(73) ▲조동삼(54) ▲최영규 ▲최정락(68) ▲황용진(61) ▲임병구(66) ▲장광윤(80) ▲장우추(60) ▲정병기(68) ▲정을규(65) ▲정지상(75) ▲조장환(60)

▲김완규(48) ▲남태철(69) ▲문창국 ▲박문정 ▲박칠홍 ▲봉종헌(66) ▲신미자 ▲안경율 ▲이혜순(64) ▲정경희 ▲정원교(73) ▲조광해(59) ▲한말숙(55) ▲김연숙(72) ▲최진해(60) ▲최현식(67) ▲홍종률(66) ▲황병선(71) ▲강석구(71) ▲강진원(59) ▲고문환(66) ▲구양모(72) ▲김관식(62) ▲김동일(62) ▲김변수(65) ▲김상미(70)

▲이종석(68) ▲이해창(67) ▲이환도(65) ▲장홍웅(68) ▲정명철(75) ▲정성모(52) ▲정정영(66) ▲조성만(74) ▲조영수(68) ▲채기원(59) ▲최 진(60) ▲최선진(62) ▲최영부(67) ▲최임순(53) ▲석명철(70) ▲손문자(62) ▲송기일(59) ▲송상용(62) ▲송인환(82) ▲심부섭(66) ▲안요근(66) ▲엄상호(56) ▲오덕근(74) ▲원용문(66) ▲윤일구(65) ▲이갑복(62)

▲김경옥(67) ▲김병균(80) ▲김성국(78) ▲김양수(76) ▲성기절(62) ▲손회옥(72) ▲안성경(72) ▲김영대(75) ▲이승연 ▲엄광섭(60) ▲오영희(75) ▲우진순(71) ▲윤명옥(73) ▲이규성(70) ▲이금자(68) ▲이은실(82) ▲이환범(77) ▲임성미(75) ▲정승이(71) ▲조태병(77) ▲추명희(74) ▲황현옥(70)

▲김미령(76) ▲김병종(81) ▲김소선(67) ▲김영신(75) ▲손원잠(69) ▲안보선(73) ▲안재후(56) ▲배창국 ▲최동신(64) ▲오수환(72) ▲우계숙(76) ▲원승덕(72) ▲이경렬(73) ▲이길룡(65) ▲이정자(66) ▲임미영(81) ▲전상주(55) ▲조성애(68) ▲최기숙(68) ▲최형선(67) ▲홍경희(70) ▲황영희(62)

◇法科大學

▲강용근(49) ▲강명식(65)

▲강문성(56) ▲강신섭(79)

▲강신옥(67) ▲강원균(54) ▲권대웅(68) ▲권준태(64) ▲권혁채(64) ▲김근대(67) ▲강동훈 ▲계 원(63) ▲공영규 ▲김도선 ▲김명국 ▲박의환 ▲배 석 ▲성달용(64) ▲윤덕순(63) ▲이관진(58) ▲장서영(73) ▲정문화(65) ▲김기인(62) ▲김동환(75) ▲김병만(67) ▲김상구(59) ▲김상훈(65) ▲김선회(56) ▲김시영(75) ▲김연하(54) ▲김영식(70) ▲김영준(65) ▲김용우(60) ▲김용채(75) ▲김운조(60) ▲서재현(70) ▲손봉균(75) ▲손선규(64) ▲송운채(68) ▲신민규(62) ▲신준선(59) ▲심연택(75) ▲안병찬(65) ▲안재영(74) ▲양동관(71) ▲양승태(70) ▲여정구(78) ▲오성계(72) ▲우찰록(74) ▲원장환(52) ▲유동수(69) ▲유인의(65) ▲유홍종(64) ▲윤종현(69) ▲이광렬(70) ▲이규형(70) ▲이동명(79) ▲이상룡(71) ▲이상혁(59) ▲이영이(54) ▲이용일(79)

▲강영훈(69) ▲강의엽(49) ▲곽영철(71) ▲권선각(68) ▲권종근(58) ▲김 홍(69) ▲권대렬(74) ▲강성목 ▲계대교(63) ▲김기훈(55) ▲김문환(69) ▲류기홍(64) ▲박재권(82) ▲서명규 ▲손계정 ▲윤성태(65) ▲이종근 ▲전상기(78) ▲조 윤 ▲김기택(67) ▲김도선(65) ▲김병규(60) ▲김봉화(74) ▲김상철(70) ▲김상희(73) ▲김성훈(65) ▲김신택(62) ▲김영성(65) ▲김영채(65) ▲김용기(56) ▲김우진(80) ▲남재득(63) ▲석진강(60) ▲손기식(72) ▲손석주(55) ▲송주환(72) ▲신동환(62) ▲신원구(73) ▲신창농(51) ▲심영수(64) ▲안상수(68) ▲안종윤(55) ▲양옥국(81) ▲양인석(60) ▲오석규(62) ▲오재세(72) ▲원의종(59) ▲유 건(65) ▲유두환(65) ▲유제춘(62) ▲윤우정(67) ▲윤태남(68) ▲이광호(60) ▲이기영(65) ▲이만호(69) ▲이상진(78) ▲이선우(67)

▲이정윤(65) ▲이진영(64) ▲이화무(59) ▲임동철(72) ▲임채진(75) ▲장주일(59) ▲전용화(77) ▲정계성(73) ▲정병준(54) ▲정승철(67) ▲정태웅(62) ▲조규정(71) ▲조동원(58) ▲조성일(65) ▲조승식(74) ▲조용완(65) ▲조정주(62) ▲조준웅(67) ▲조헌수(82) ▲진의문(68) ▲차형근(82) ▲최기정(64) ▲최문길(56) ▲최병윤(60) ▲최순철(59) ▲최윤식(73) ▲탁일호(55) ▲한기태(54) ▲한영수(62) ▲한장희(65) ▲한준남(54) ▲한민식(64) ▲함정훈(60) ▲호문혁(72) ▲홍광식(71) ▲홍석조(75) ▲홍순범(52) ▲황병기(59) ▲황의순(76) ▲황재성(69) ▲황회주(64) ▲황인철(64) ▲황철이(65) ▲김대환(65)

▲이장성(71) ▲이진규(65) ▲이찬욱(68) ▲임도빈(71) ▲임봉식(83) ▲장 호(71) ▲장향진(84) ▲전영수(62) ▲정 창(65) ▲정경택(74) ▲정구영(82) ▲정극수(59) ▲정상명(72) ▲정진오(71) ▲조경환(79) ▲조기천(60) ▲조석래(55) ▲조수현(74) ▲조여언(74) ▲조정식(72) ▲조정찬(78) ▲조해섭(75) ▲주영훈(64) ▲차한성(77) ▲최거훈(80) ▲최기영(65) ▲최덕보(71) ▲최병남(69) ▲최성준(79) ▲최의규(55) ▲하성대(52) ▲한규환(62) ▲한기택(81) ▲한창은(64) ▲한태경(65) ▲함승희(74) ▲허윤강(64) ▲홍경식(74) ▲홍기인(59) ▲홍성계(64) ▲황규정(62) ▲황선익(72)

◇音樂大學

▲곽완주(75) ▲김영준(77) ▲박수영 ▲이명진 ▲김영자(63) ▲신유식(74) ▲염각경(58) ▲이경희(80) ▲김명희(68) ▲이영이(77) ▲전서영(76)

▲김정옥 ▲손춘옥(73) ▲홍경아 ▲손명진(75) ▲안동혁(78) ▲오양구(69) ▲이광희(58) ▲이상녕(72) ▲이희철(65) ▲장은영(76) ▲이정희(52)

〈다음호에 계속〉

演劇會同門會

모임探訪

〝쟁이〟정신으로 남다른 結束力

5백여 會員 연극계 主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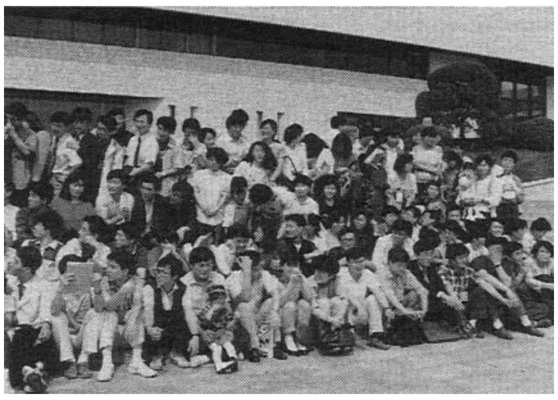
모교 재학시 서클활동으로 연극회에 속해 있던 동문들이 작년6월 모교 문화관에서동문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연극회 총동문회」를 결성했다.

모교의 역사에 버금가는 연륜을 지닌 연극회는 그 구성원들이 졸업후 각 단과대학혹은 期별로 만나는 모임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체 연극회출신의 모임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뜻있는 몇사람에 의해 서울대학교라는 큰울타리 안에서연극활동을 했던 동문들의 집합체를 만들고자 동분서주한 결과 이번 결실을 보게 됐다.

우선 이들은 연극회의 연륜이 상당하고, 배출된 인원이 많아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우선 冠岳캠퍼스 이후의 세대부터 모이기로하고 초대 회장에 梁有吉(81년 自然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실장)동문을 선출했는데, 梁동문은 『동문들의 단합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현상에 대한 상호 의견교류및 동문연극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아 나가겠다』며 『75학번 이전의 선배들도 동참하는 명실상부한 연극회 총동문회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교 연극회는 이미 국내 연극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쳐왔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연극문화의 본산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일찍이 金祐鎭의 「산돼지」를 발굴하여 공연했고, 秋昊卿(69년 文理大卒·서울地檢검사)동문의「유희는 끝났다」등을 무대에 올리는등 번역극일변도의 당시 관행을 깨고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실천해 왔으며, 70년대 초의 마당극도입, 창작극 시도등으로 새로운 연극전통을 수립하는데 한몫 해왔다.

이번 「연극회 총동문회」발족에 산파역을 맡았던 金錫坂(82년經營大卒·정보마켓 차림대표·부회장)동문은 『연극회의 특성상 잘뭉치고 잘모이는 것이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원이 급속히 늘어나 선후배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공식기구가 필요했다』며 『첫째는 동문간의 친목도모가 중요하겠지만 척박한 연극현실을 감내하면서 무대를 지키고 가꾸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조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총동문회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창립총회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함께한 회원들.

앞으로 이들은 5백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소재와 근황·주요공연작품이 수록된 명부를 발간할 예정이며 올해안에는 전체 서울대학교 연극회출신 동문들이 모여 펼치는 「연극페스티발」을 구상중에 있다. 아울러 이들은 동문들의 공연지원과 후배들의 장학금 지급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장차적으로는 연극회 총동문회 전용연습실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 이번 발족한 총동문회 이전에도 85년 결성됐던 「총연극회」가 있기는 했으나 이는 각단과대학 연극회의 연합체라는 의미로서 끝나 이번 총동문회에 거는 동문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앞으로 동문 상호간의 교류와 노력을 통해 연극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는 동회는 조만간 연건동 캠퍼스의 醫大·齒大연극회도 규합할 것으로 보여 명실공히 서울대학교 연극회의 집합체가 될것으로 보인다.

지난 가을 동문친목야유회도 개최했던 이들은 총동창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연극회를 떠난 「서울大동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다. 〈金庚勳 기자〉

女性 여성

醫師界

「含春 女子의사회」결성

후배 勉學지원·奉仕활동등 활발

51년 첫 卒業生, 현재 3백여명 活躍

해방이후 1951년 첫졸업생을 배출한 후 母校醫大를 졸업한 女子同門의 수는 통틀어 3백18명뿐이다. 이는 전체 졸업자들중 4%정도에 지나지 않아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만큼 의대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女子가 醫學을 공부한다는 것은 오랜동안 힘겨운 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동안 여성진출이 어려웠던 분야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한해에 5~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던 모교에서도 80년대 들어 큰폭의 변화를 보이면서 이제는 평균 20·30명씩의 女醫師를 배출해내고 있다.

전문영역에서 자리를 굳히기란 어느 분야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특히醫大生이 걸어야 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6년이라는 긴 학부생활을 마치고도 인턴·레지던트과정을 마쳐야만 비로소 醫師로 탄생되는 것이다. 더구나 女學生의 경우 학창시절부터 여러모로 불리한 여건속에서더 큰 희생과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 朴孃實동문

◇ 張婧淳동문

지난 51년 鄭英淳(모화의원)동문의 졸업으로 출발된 모교 여의사들의 모임은 다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미 74년부터 「含春女子醫師會」라는 모임체를 결성,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모교 여의사동문들은女性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상담등 대외적인 사회봉사 활동은 물론 후배들의 면학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신입회원에 대한 기념도장 수여등 친목도모의 차원을 넘어 봉사하는 女醫師像을 정립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난해 5월 韓國女子醫師會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한 朴孃實(60년卒·박산부인과원장)동문은 『醫術을 펼치는 일은 인간의 生命을 다루는 중요성 때문에 치밀하고 섬세한 성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女性들 특유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살린다면 男性 못지않게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부문』이라고 설명한후 『여의사의 경우 결혼후 出産·育兒의 부담을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할일」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회활동을 펼칠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뒤처질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소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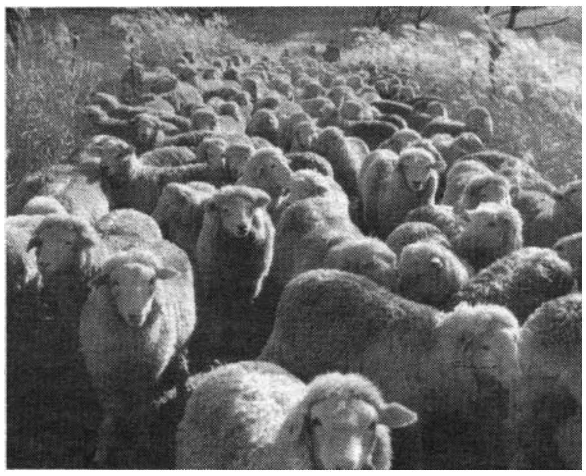
또한 含春女子醫師會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張婧淳(60년卒·상도내외의원장)동문 역시 여의사의 경우 40代에접어들어서야 비로소 동창회에 참여할 여유가 생기게 되지만 이는 동문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다며 많은 후배들의 적극성을 촉구하기도.

이밖에도 張회장은『요즘은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개업동문들의경우, 환자가 女醫師라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예가 빈번했다』며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一針을 가한다.

비록 여의사들은 숫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모든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유대로 산적한 문제해결과 함께 불이익을 극복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직 여성단체로 성장할것을 다짐한다. 〈吳蘭姬 기자〉

온순·단결의 상징 羊

── 吳昌泳〈53년 獸醫大卒·서울大公園 연구원〉



羊은 일찍이 3천5백만년전(제3紀 中紀)에 염소와 함께 그기본체형이 나타났고 기원전 8~7천년(中石器~新石器시대)에는 이미 현세의 진화형태가 서남아시아의 요르단강변과 카멜산에서 뼈로서 출토되고 있다.

이 두종류의 동물이 인류와의 관계를 맺게된 것은 이때부터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온순한데다가 무리를 이룬다는데 있었다. 遊獵民들은 그 무리를 뒤따르기만 하면 딴 동물들처럼 하나하나 추적할 때와는 달리 시간도 절약되고 위험성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양들도 사람이 요구하는 적은 희생의 댓가로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반대급부가 컸었다. 양자간의 이와같은 호혜공생관계는 기원전 3천여년에 와서 자연스럽게 가축화하는데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가축화전후무렵의 양과 염소의 경제성은 매우 컸던것으로 종래의 유렵생활을 벗어나 遊牧생활로 전환을 가져오게 됐다.

식량공급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차차 가죽, 털가죽, 털, 젖, 지방등 모두가 의식주의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이다.

서남아시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로 전파된 이 유용한 가축은 기원전 3천년에는 북아프리카로, 2~1천5백년께는 중국, 인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양은 초원으로, 염소는 척박한 사막과 산악지대로 서식환경을 달리해 나아갔다.

中石器 시대부터 人類와 共生

秩序·適應力 인간도 배워야

이 두 동물은 起源과 進化를 함께 해온 만치 공통점이 많으면서도 본래는 엄연히 별개종들이다. 분류학상 소科·양亞科·염소族까지는 한 계통이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양屬과 염소屬으로 갈린다. 양털은 緬毛(Wool), 염소털은 hair. 수염은 염소에게만 있고 이빨은 양이 2개가 많다. 염색체도 염소가 56, 양이 60이고 趾間腺은 양에게만 있다. 염소고집이란 말에 반해 양은 온순하기만 하여 목동의 지팡이 하나, 한마리의 牧羊犬으로 무리를 제어할 수가 있다.

오늘날 가축양은 고산성의 알갈리를 주축으로 중산성의 우리알과 저산성의 무플론등 야생양들이 유전적으로 寄與해서 이룩된 것이며 용도별로 특성을달리하는 수많은 개량品種이 育種되어 2차대전 전에는 무려 10억마리가 전 세계에서 사육되기도 했다.

주요품종으로는 毛用種인 메리노를 들 수 있다. 연간생산량 5~11kg으로 긴털(梳毛)은 모슬린, 캬바진, 세랄등을 짜고 짧은털(紡毛)은 멜톤, 프란넬을, 粗毛로는 카펫을짠다. 毛·肉種으로는 코리데일, 린컨, 레이스터, 다운종이 알려져있고 兼用종인 카라쿨의 갓낳은 새끼의 까만 毛皮는 고급패션으로 珍品이다. 乳用종으로는 라카운을 치는데 그 젖으로 만든 록폭치즈는 특히 유명하다.

아직도 유목생활을하는 몽고사람들은 특유의 전통적 양고기요리가 있고 중국의 북부에서도 羊羹(양고깃국)이란 것을 즐긴다는데 큰 잔치에는 으레 소를 잡고 양을 삶는(宰牛烹羊) 풍습이 있다.

이웃 중국이나 몽고만 해도 양에 대한내력이 이렇듯 깊건만예로부터 이들 북방민족과는 특히 많은 文物의 왕래가 있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양의 전래가 그다지 없었던것은 의아스러운 일이다.

다만 신라이래 陵墓둘레의 十二支神像조각이나 石羊이 보이고왕가의 제례에 양이 제물로 오르기는 했으나 牧羊에 적합한 초지가 적고 양고기의 독특한 휘발성냄새가 우리의口味에는 안맞는 탓인듯하다.

우리나라에서 양의사육이 시도된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였으나 2차대전후에는 화화섬유의 보급으로 쇠퇴됐고 세계적으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에 대한 일반적인상은 동서를 막론하고 온순하고 상호의존성이 강한 단결성있는 동물이란 긍정적 면이 있으나 온순하기만 하여 저항할줄을 모르기 때문에 희생만을 당할밖에 없는 아둔하고무력한 동물이란 부정적인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올해는 辛未年. 양의 해를 맞이하여 안팎으로 흩어진 우리 민족이 양때와 같이 뭉쳐서 통일의 숙원을 성취하고 그슬기를 만방에 떨치는 영광의 한해로 승화시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趣味생활

바둑 〈3〉

── 姜哲民〈61년 商大·프로七段〉

圍碁十訣

바둑을 이기는데 10가지 비결을 古今의 先賢들은 말하고 있다. 紙面관계로 그 10訣을 2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1、貪不得勝

욕심이 지나치면 이길수없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남의 말을 적당히 공격하면서 이득을 보면 이길수 있을 것을 무리하게 끝까지 잡으려다가 파탄이 생겨지는 수가 가끔있다.

2、入界宜緩

서둘러서 적진영 깊숙이 들어가지말라는 말이다. 즉, 상대방모양을 삭감하려면 어깨를 짚거나하여 천천히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내모양을 넓히며상대방모양을 좁이는 수(대부분 날日자)는 一石二鳥의 수로 더욱더 좋다.

3、攻彼顧我

내적의 돌을 공격할 때는 내돌의 형편을고려하면서 해야한다는말이다.

즉 내돌이 약한데도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만 전념하면 파탄이온다는 뜻이다.

4、棄子爭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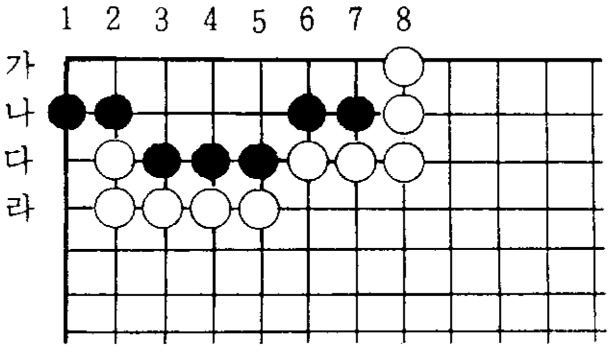
몇점의 돌은 버리고 달른곳에 先着하는게낫다는 말로 몇점의 돌이 要石이어서는 안된다. 要石이 아닌 경 5점이라도 10집 밖에 안되므로 보통 중반까지는 先着의 한수가 20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어느것이 큰지는 알만하다.

5 捨小就大

棄子爭先과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니나 바둑 한수 한수 둘때마다 이것보다 더큰 곳이 없나 이곳저곳 살피면서 비교하란는 말이다.

6、逢危須棄

위험을 만나면 버리라는 말로 궁지에 몰린 돌이 살아나갈려도 상대방에 많은 이득을 주지않으면 안될때 그돌이 크기 전에 미리 버리는 것이 좋다는것이다. 큰말을 버려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문제도】 白先패

【문제도 풀이】

가4로 중앙을 파고드는 수가 유일한 길이다. 黑은 나5로 응수할 수밖에 없다. 이때 나3으로 걸치면黑은 나4로 호구. 여기서 가2로 패를 만드는 것이 白으로서는최선. 만약 黑이 가3의 수대신에 가5로 몰면 白은 가3으로 잇고黑가1로 따낼때 바로白은 가3으로 치중한다. 黑이 가7로 한집 내더라도 白나3의 곳으로 끊어 黑은 죽는다.

新刊

▲한국현대사와 민족문제

—愼鏞廈著(61년 文理大卒·모교敎授)

저자는 우리가 주지하는바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중후한 논문과 역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남기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책머리에서 밝히듯 『민족문제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외세의 끊임없는 도전과 침략속에서 나라와 겨레의 독립을 지키며 자유로운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점철돼 왔다』고 파악, 한국 민족문제에 관한 논문 20편을 3부로 묶었다. 제1부「한국근대사와 민족문제」 제2부「일제시대사

와 민족문제」 제3부「한국현대사와 민족문제」를 일관하는 논점에서 우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자의 민족애와, 민족문제의 학문적 접근에는 무엇보다 냉철한 이성적 논리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사회과학적인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부분부분,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한국 현대사와 민족문제에 관한 독보적인 영역을 펼쳐보이고 있다.〈문학과지성사刊· 7천원〉

▲蘇聯政治經濟事典

—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編

우리의 공산권에 대한 이미지와 지역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대체로 스탈린주의나 北韓에 대한 인식에 의해 크게 영향받아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자료의 축적 또한 극히 일천한 형편이다. 이 사전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우리의 소련·동구권내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다 깊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축적이라는 의도로 집필됐다. 현재 모교 국제문제연구소(소장 鄭鍾旭 사회大교수·65년 文理大卒)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東歐圈사전」시리즈의 일환으로 발간된 이책에는 소련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에 대한 주요개념1백개가 수록돼 있으며 각 분야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돼 있다. 항목수의 선정은 국내 각 분야의 소련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항목선정위원회에서 국내의 관심도와 개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전의 필요성을 인식, 문교부를 비롯 모교 교수들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다.〈民音社刊· 9천원〉

▲韓國法學史

—崔鍾庫著(70년 法大卒·모교교수)

이 책은 실정법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 철학 및 역사와 서구법학의 원리와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토착화하는 양대 문제를 한꺼번에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곳곳에 배어있다. 이 책은 삼국시대의 법학으로부터 현금의 법학에 이르기까지 한국역사의 거의 전시대를 대상으로 서술하면서 실학과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법학의 한국에의 이입경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편 개화기 이후 일제시대까지의 한국법학의 내용과 특색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귀중한 근거자료를 제시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법학을 다룸으로써 우리 법학의 영역을 확대 모색하고 있다. 특히 법관양성소에서부터 모교 법대의 법학사가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모두 11개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책은 이외에도 서장으로서 한국법학사의 과제와 방법을, 책의 말미에는 인명색인과 사항색인을 붙여 한국법학사의 입문서로서뿐만 아니라 독자를 위한 辭書로서의 기능도 담고 있다.〈박영사刊· 1만1천원〉

▲한글의 역사와 미래

—金貞秀著(72년 文理大卒·한양大부교수)

「한글은 우리가 애써 지키며 현대문명에 적응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고려와 조선의 활자문화처럼 한 시대의 자랑거리에 불과하다」는 반성에서 출발, 한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한 연구서.

창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글의 역사적 의의와 변천과정을 개관하고 한글의 특징을 다섯가지 측면에서 고찰,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면서 전산화, 표음능력의 강화, 풀어쓰기 등 한글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의 현실을 토대로 모색·제시하고 있다. 한편 권말에 붙인「한글연표」와「훈민정음 영인」은 자료로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열화당刊· 3천원〉

▲스티븐호킹의 새로운 검은구멍

—朴碩在著(80년 自然大卒·모교강사)

이 책은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업적 중에서 일반인이 익히 들어오면서도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치 못했던「검은 구멍·Black hole」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이 책을 내는데 평소 내가 '이러한 내용을 나의 학창시절에 접할 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고 나 자신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글들을 많이 써둔 것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전반부에 검은구멍의 개념·검은구멍 천체물리학의 미래까지를 다루면서 후반부에는 스티븐호킹의 한국방문 특별강연 내용의 전문과 아울러 스티븐호킹의 소고를 함께 묶어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블랙 홀 입문서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극도로 어려운 천체물리학의 일부인 블랙 홀에 관해 극도로 간결한 설명을 통해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자세한 도해와 수식을 곁들여 천체물리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국제언론문화사刊· 3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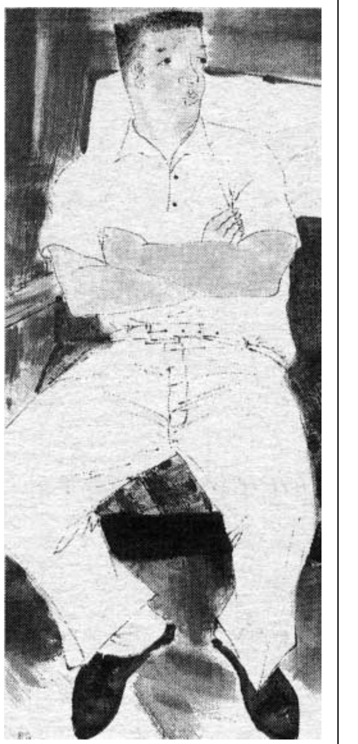
※이번호 공연안내 쉽니다.

展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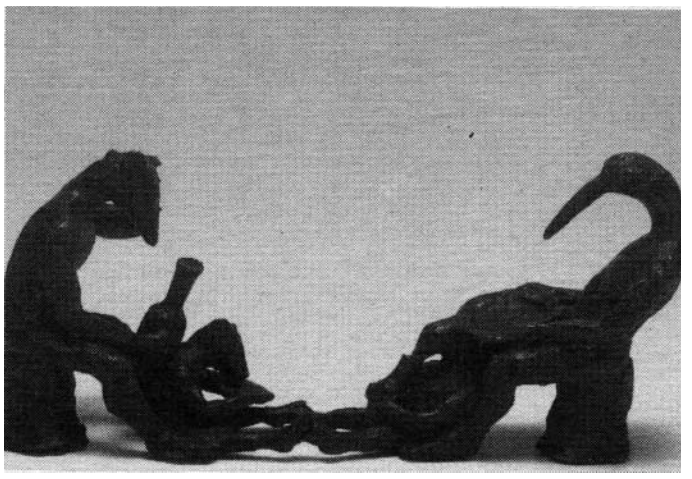
▲權奇允작품전

이번에 전시하는 그림들은 모두 주변에서 그 대상을 발견해 그린것들이다. 때문에 전래적인 화법을 막연히 흉내내지만은 않았다. 전통적 화법을 원용하면서도 한구석 한구석 구체적인 관찰을 보태는 가운데 나름대로는 명암, 원근, 건습, 소밀, 허실, 강약 등 조형문법적 요소를 점검해 보았다. —작가의 글에서—

〈81년 美大卒·안동大교수〉



서울행/화선지에 수묵담채. 64×136㎝, 1984.



남북대화(南北對話)/청동, 1990.

▲黃賢秀조각전

황현수의 조각작품은 그것이 작은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예사롭지 않은 힘을 지니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일련의 작품들이 지닌 독특한 성격때문에 그의 작품에는「서술적인 조각」이라든지 「형상성」 혹은 「상황」을 드러내는 조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그러면서도 그가 파악하고 있는 인생은 좌절과 분노, 절망과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순을 딛고 일어서려는 인간의 의지와 정신, 도전적인 인간의 당당한 모습이다.

〈78년 美大卒·한국美協상임이사〉

母校소식

天文台 개관

모교 천문대가 준공되었다. 이 천문대는 1백80평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구경 61㎜ 연구용 반사망원경과 CCD카메라、천체분광기 등의 광검출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천문대 개관을 기념한 천문학과 동문들의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12월9일 동문 및 재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91학년도 合格線 낮아져

3백점대 작년 절반

人文계는 6~8점 하락

91학년도 모교 입시에서 科別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 자연계열은 3~5점、인문계열은 6~8점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한 韓確군(사진 右에서 두번째)이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구랍 30일 발표된 신입생합격자발표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4천3백85명중 3백점 이상 고득점자는 21·3%인 9백34명으로、지난해 1천8백53명의 절반에 그쳤다.

과별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져 인문계열에서 가장 높은 법학과가 학력고사점수로 환산할 경우 2백92·5점으로 전년보다 10점 가까이 떨어졌으며 사회학과 영문학과가 2백89·5점、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영학과는 2백89점이었다.

자연계열 전자공학과와 물리학과의 합격선은 2백95점이었고、전년도에 3백점을 넘었던 제어계측과 화학공학과의 합격선도 2백97점과 2백90·5점으로 각각 떨어졌으며、의예과는 2백91점이었다.

이처럼 과별 합격선이 모두 3백점 미만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체학과에서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학과는 항공우주공학과의 2백98점이었다.

한편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문계보다 자연계에 고득점자들이 몰려、3백점이상 합격자중 67·2%인 6백28명이 자연계였다.

모교에 따르면 이번입시에 합격자를 낸 高校는 전국에서 모두 5백84개교로、3개교는 50명 이상의 합격자를 냈으며、합격자중 서울출신이 41·4%(1천8백1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수석은 공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한 韓確군(16·목포덕인고 3년)으로、총4백85·7점 만점에 4백70·7점(학력고사 3백25점)을 얻었으며、인문계수석은 법학과를 지원해 4백69·2점(학력고사 3백23·5점)을 받은 金志鴻군(18·대전대신고)과 鄭錫鍾군(18·대구능인고)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여자 전체수석은 공대 무기재료공학과에 지원해 4백67점(학력고사 3백21·3점)을 얻은 孫志璞양(19·서울서초고卒)이 차지했다.

碩·博士과정도

91학년도 석·박사과정 합격자가 12월13일 발표되었다.

석사과정은 總 6천3백77명이 응시하여 2천5백61명(선발예정인원은 2천5백61명내외)이 합격되었으며、박사과정은 1천4백83명이 응시하여 9백36명(선발예정인원은 9백36명내외)이 합격되었다. 박사과정 합격자중에는 석·박사과정 연계운영으로 이미 선발된 91명이 포함되어 있는 바、인문대 2명、자연대 30명、공대 54명、사범대 1명이다.

「圖書館 발전특위」구성

韓國火藥그룹 출연、도서확충계획 검토

도서관의 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도서관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제1차회의는 12월13일 오전 11시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며、위원은 교무처장、연구처장、기획실장、사무국장、도서관장、중앙교육연구전산원장이고 간사는 교무과장、기획담당관、수서과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화약그룹 출연 도서확충사업기금 활용계획(안)이 보고되었으며、이어 도서관전산화사업계획(안)이 검토되었다.

「發展基金」조성에 同門들의 관심을

1천만원이상 出捐者와 趙完圭총장 懇談會가져

조완규 모교 총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동안 이루어진 발전기금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90년도 1천만원 이상 기금출연자들과 함께 12월20일 11시30분에 총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곧이어 호암교수회관에서 오찬을 함께하였다. 학교측에서는 조완규 총장、김영국 부총장、조동성 상임이사、정영일 기획실장이 참석한 이 간담회는 학교와 출연자들간에 우의와 친목을 나누고 대학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다.

이 간담회에서 조완규 총장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출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또한 한국타이어제조㈜의 홍건회 회장은 지난 번에 기부한 1천만원이외에 이날 1천만원을 추가로 기부하였다.

홍회장은 최근 신설된 人文大 예술문화연구소(소장 林英芳)와 社會大 비교문화연구소(소장 韓相福)의 운영여건 조성이 절실하다는 소식을 듣고 발전기금을 흔쾌히 출연했다.

간담회 초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았다.

고 조용순씨 유가족、김온순(경영대 조동성교수의모)、박종태(삼남상사 대표)、한국타이어제조㈜ 대표 홍건회(미학과 4년 홍기원의부)、삼송㈜ 대표 이선식(49년건축공학과 입학)、김인홍(김인중 법률사무소、60년 법대졸업、영문학과 대학원 1년 김영아의 부)、삼일회계법인(대표 서태식 63년 경제학과졸업)、동양그룹(회장 현재현 71년 법대 졸업)、금호그룹(회장 박성용)、㈜한샘(대표 조창걸、63년 공대 졸업)、동일강업㈜(대표 김세재、67년 법대 졸업)

篤志家 朴鍾泰씨 「서울大꿈나무」심어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는독지가가 「서울대꿈나무」 한그루를 소중하게 심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남구 대치동에서 「三南商事」라는 조그만한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朴鍾泰씨(53세)로 지난 5월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간 대화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이래 한달도 빠지지 않고 약정한 날에 계속 송금하고 있다.

朴鍾泰씨는 서울대학교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서울대학교의 발전이 곧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천이라는 신념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중 「서울대학교발전기금」조성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작은 금액이지만 서울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다고 그 동기를 밝혔다.

朴鍾泰씨는 앞으로도 위의 금액 이외에 목돈을 마련하여 「대화발전기금」으로 기탁하겠다는 뜻도 전해 왔다.

孫達植 동문에게 工大발전공로賞수여

工大에서는 매년 연말 전체 교직원 송년모임을 공대 회의실에서 갖고 이 자리에서、대학발전에 공로가 많은 동문을 선정하여 <공로상>을 수여하여 왔는바、금년에는 지난 12월21일 개최되어 孫達植동문(52년 工大卒·부천 세종병원 감사)에게 수여하였다.

孫동문은 86년8월 모교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 심장병을 전담으로 치료하는 부천 세종병원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 어린이들을 무료 또는 실비 이하로 치료하여 왔다.